보도자료
본 자료는 11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동 향 분 석 실 장 (02) 3299-3205
강두용(거시) 010-2466-1057
성장동력산업센터장 (02) 3299-3290
장윤종(산업) 010-5242-9063

2012년 경제·산업전망

2011. 11. 24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 목 차 >

<요 약> ····· i

Ⅰ. 거시경제 전망 ····· 1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 1
2. 대외여건 전망 ····· 4
3. 2012년 국내경제 전망 ····· 10

Ⅱ. 주요산업 전망 ····· 24

1. 2011년 동향 ····· 24
2. 2012년 전망 ····· 26
3. 정책적 시사점 ····· 39
4. 주요 산업별 2012년 전망 요약 ····· 42

<요 약>

Ⅰ.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 회복세 둔화 추이

○ 국내 경기는 2분기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는 추이

- 상반기중 높은 증가세를 이어왔던 수출이 선진권 부진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최근 들어 증가세 둔화

- 내수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 증가세가 하반기 들어 크게 둔화

○ 선행지표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회복세 둔화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세계경제 : 선진권 부진으로 성장 둔화

○ 세계경제는 유로권 재정위기의 영향과 선진권 전반의 재정불안에 따른 긴축선회 등으로 선진권 부진이 지속되고 신흥권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4% 내외의 성장을 예상

- 유로권 재정위기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로서 상당기간 선진권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중국은 최근의 성장둔화 추세가 2012년중에도 완만하게 이어질 전망

□ 국제유가 및 환율 : 유가 소폭 하락, 원/달러 환율 완만한 하락 예상

○ 국제유가는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라 보합세 내지 소폭 하락을 보일 전망

○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달러 약세 등으로 하락 기조가 이어질 전망

□ 2012년 경제성장 : 연간 GDP 3.7% 성장 전망

○ 국내경제는 2012년 연중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중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부문별로는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지고 내수는 전년(2011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민간소비는 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GNI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국내외 경기둔화 및 불확실성 증가의 영향으로 투자는 낮은 증가에 그칠 전망

○ 유로권 재정위기, 선진권 경기부진 등 대외부문 불안이 가장 큰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이 주요 하방 위험요인

- 유로권 재정위기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전개과정에서 심각한 금융불안을 유발할 경우 세계경기 급락과 더불어 국내에도 큰 타격을 미칠 가능성

□ **민간소비 :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가로 3%내외 증가**

○ 민간소비는 유가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GNI 성장률이 다소 높아지나 고용 회복세 둔화, 높은 가계부채 부담 등이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약간 높은 3% 내외의 증가를 보일 전망

□ **투자 : 설비투자는 증가세 둔화, 건설투자는 증가세 전환되나 낮은 증가**

○ 설비투자는 수출 증가세 둔화, 세계경제 불안 재연 등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

○ 건설투자는 전년의 감소세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낮은 증가에 그칠 전망

□ **수출입 : 연간 수출증가율 7% 내외, 무역흑자 240억 달러 전망**

○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물량 증가율 하락, 유가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세 소멸로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7% 내외의 증가(통관기준)를 예상

○ 수입 역시 국내경기 둔화와 유가 및 원자재가 안정에 따른 수입단가 안정으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연간 8%대 증가를 전망

○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12년 무역흑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24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표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11년			2012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3.8 <1.1>	3.6 <0.8>	3.7	3.4 <0.9>	3.9 <1.0>	3.7
민간소비	2.9	2.4	2.7	2.9	3.1	3.0
건설투자	-9.0	-1.7	-5.2	3.2	1.2	2.1
설비투자	9.4	2.8	5.9	3.5	6.4	4.9
통관기준 수출(억달러)	2,737	2,824	5,561	2,910	3,045	5,955
(%)	(23.7)	(15.2)	(19.2)	(6.3)	(7.8)	(7.1)
통관기준 수입(억달러)	2,581	2,685	5,266	2,781	2,934	5,715
(%)	(26.7)	(21.3)	(23.9)	(7.7)	(9.3)	(8.5)
무역수지	156	139	295	129	111	240
경상수지	81	124	205	64	66	130

주 : < >안은 전기대비 분기증가율의 반기 평균임.

Ⅱ. 산업별 전망

□ 제조업 내수는 전반적으로 부진

○ 고용불안, 가계소득 부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세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제조업 내수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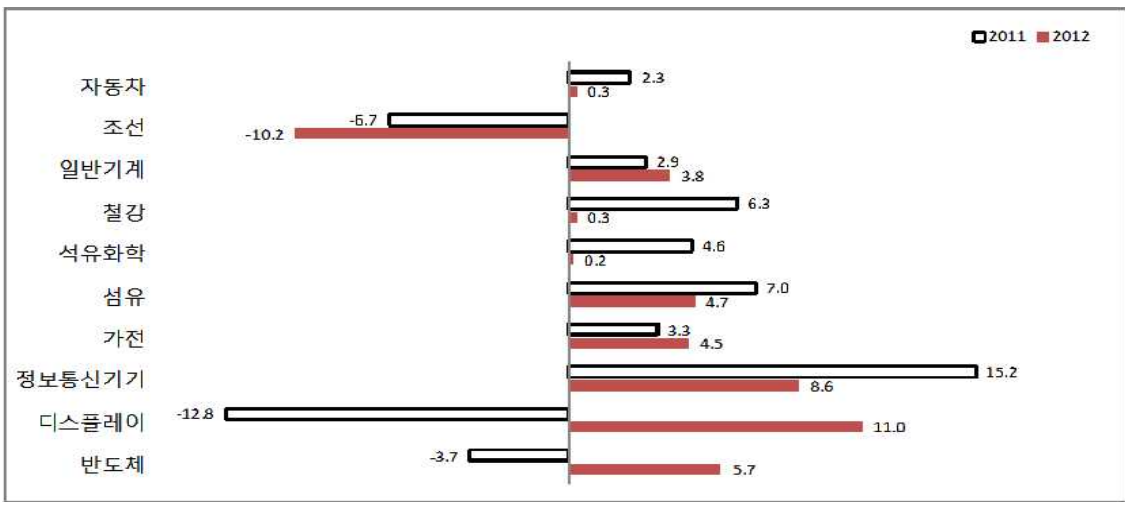
○ IT제품군은 정보통신기기의 호조 지속과 가전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완만하나마 회복기조로 전환

○ 기계산업군의 경우 일반기계 내수는 양호하나, 자동차와 조선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

○ 소재산업군은 건설경기 부진, 전방산업의 성장 둔화, 구매력 둔화 등으로 0~5%의 미약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그림 1> 2012년 주요 산업별 내수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조선 급락으로 인해 6.5% 증가에 그칠 전망

○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신흥시장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6.5% 증가에 그치는 수준. 다만, 급락세가 예상되는 조선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8.9% 시현

○ 2012년의 수출은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4개 산업이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주도해나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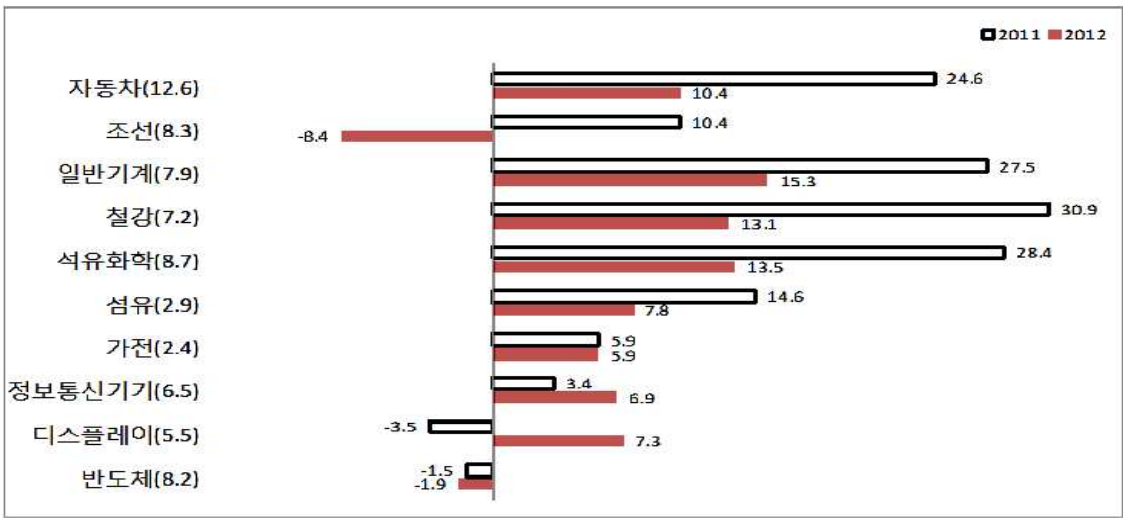
○ 소재산업군은 중국, 동남아 등 신흥국의 수입수요가 유지되고 국내 업체들의 수출 확대 노력에 힘입어 12% 증가하면서 순항기조를 유지

○ 기계산업군은 신흥국 수요 증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일반기계와 자동차 수출은 호조이나, 조선은 건조선박 인도 불투명하여 8% 이상 감소할 전망

○ IT산업군 수출은 런던 올림픽 특수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3.5% 증가하면서 2011년의 부진에서 회복될 전망

<그림 2> 2012년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 )은 2012년 총수출 대비 점유율.

□ 내수와 수출 둔화로 생산도 증가세 둔화

○ 국내생산은 내수 회복세 미약, 수출환경 악화,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세 둔화 예상. 다만,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IT산업군은 전년과 비교하여 증가율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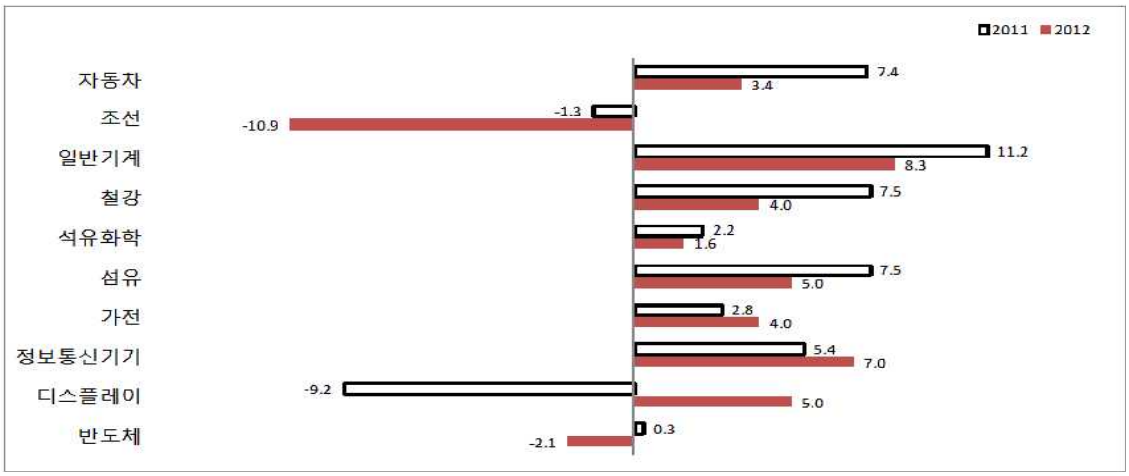
○ 기계산업군에서 일반기계와 자동차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의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조선은 10% 이상 감소할 전망

○ 소재산업군은 설비능력 확대에 대응한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에 힘입어 1~5%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

○ IT산업군은 정보통신기기와 가전이 5~6% 대의 완만한 상승세, 디스플레이의 감소세 탈출이 예상되나,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는 전년의 제로성장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악화 예상

<그림 3> 2012년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10대 주력업종 수입은 내수 및 수출 둔화로 4%의 소폭 증가

○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해외생산제품의 역수입 및 저가제품 수입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3.8% 정도 소폭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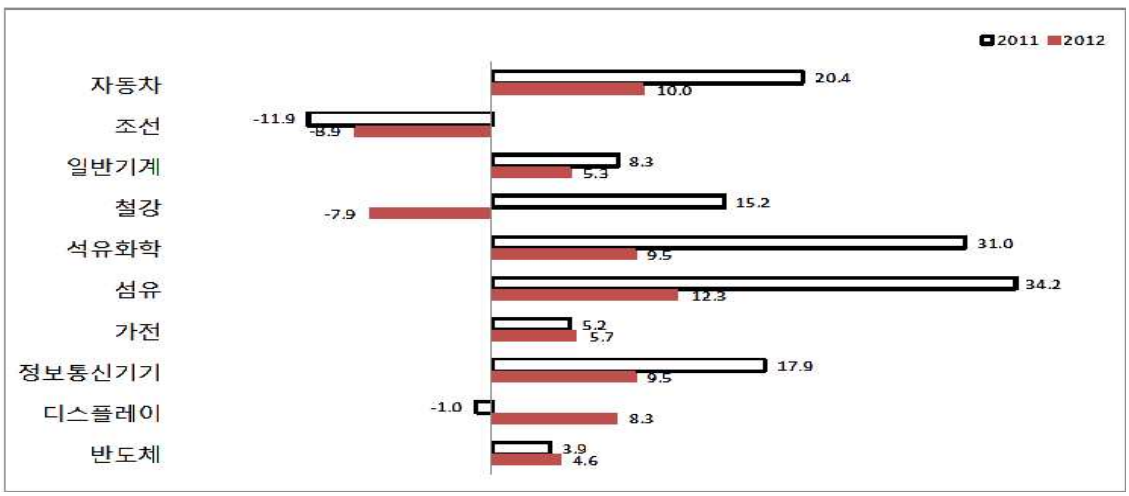
○ IT산업군은 국내 생산이 부족한 부품의 수입, IT신제품 수요 확대, 해외 생산 제품 및 부품의 역수입 증가, 외국 브랜드들의 국내시장 공략 강화 등으로 6.5% 증가할 전망

○ 기계산업군은 수입차 증가와 외국산 첨단장비 도입이 늘어나면서 5% 증가할 전망

○ 소재산업군은 업종별로 수입수요 편차가 큰 가운데, 수입규모가 큰 철강의 수입 감소로 1% 감소할 전망

<그림 4> 2012년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 2012년 산업전망 종합

○ 2012년의 10대 주력산업은 세계 시장 부진과 경쟁 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수출주도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4대 비IT 산업이 수출과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수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그 동안 개도권 시장 개척이 성공을 거둔 때문으로, 2012년에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의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유럽 재정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조선산업으로서 수출, 생산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예상

○ IT산업군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글로벌 경쟁이 더욱 거세지고 세계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대응 여하에 따라 성장 진폭이 커질 가능성 상존

<표 2> 2012년 산업전망 기상도

	내수	생산	수출	수입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디스플레이	☼☼	☼	☼	☼
반도체	☼	🌧	🌧	☁

주 : 1) 전망 :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10% 이하 ☂☂, -5%～-10 ☂, -5～0% 🌧, 0～5% ☁, 5～10% ☼, 10% 이상 ☼☼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I. 거시경제 전망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 2분기 이후 회복세 둔화 추이

○ 국내 실물경기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GDI 성장률 부진, 선진권 경기부진의 영향 등으로 2분기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는 추이

* GDP (전기비 %) ('11.1/4) 1.3 → (2/4) 0.9 → (3/4) 0.7

* GDP (전년동기비 %) ('11.1/4) 4.2 → (2/4) 3.4 → (3/4) 3.4

- 유가 급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소득(GDI 및 GNI)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크게 하회

* GDI (전년동기비 %) ('11.1/4) 1.9 → (2/4) 0.5 → (3/4) 0.6

* GNI (전년동기비 %) ('10.4/4) 3.0→ ('11.1/4) 1.8 → (2/4) 0.6

- 선진권 경기부진이 대선진권 수출부진으로 나타나면서 수출은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이

* 통관기준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비 %)
('11.2/4) 18.7→ (7월) 21.7→ (8월) 25.9→ (9월) 18.8→ (10월)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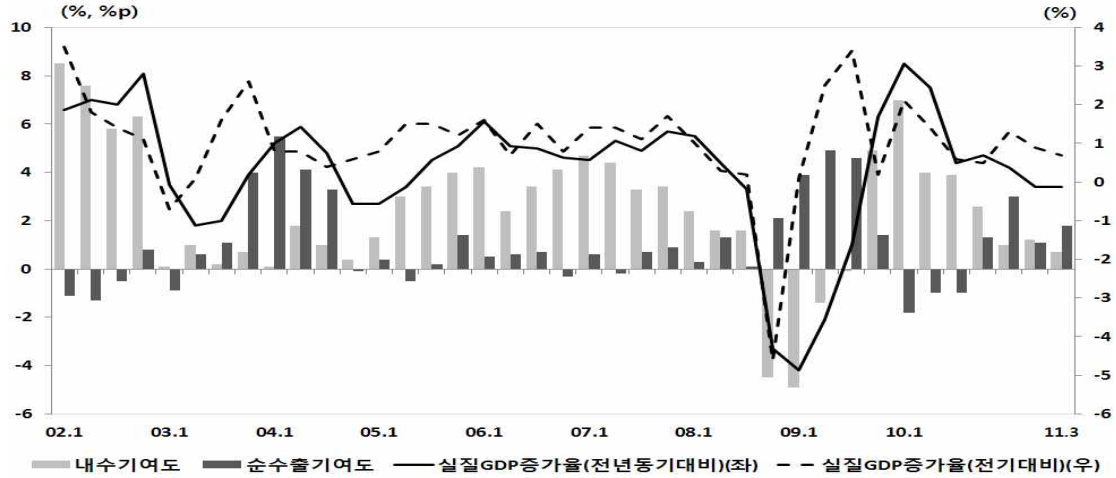
- 내수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비 % : 이하 同)
('11.1/4) 2.8 → (2/4) 3.0 → (3/4) 2.2

* 설비투자 증가율(%)
('11.1/4) 11.7 → (2/4) 7.5 → (3/4) 1.4

* 건설투자 증가율(%)
('11.1/4) -11.9 → (2/4) -6.8 → (3/4) -4.2

<그림 Ⅰ-1> GDP 및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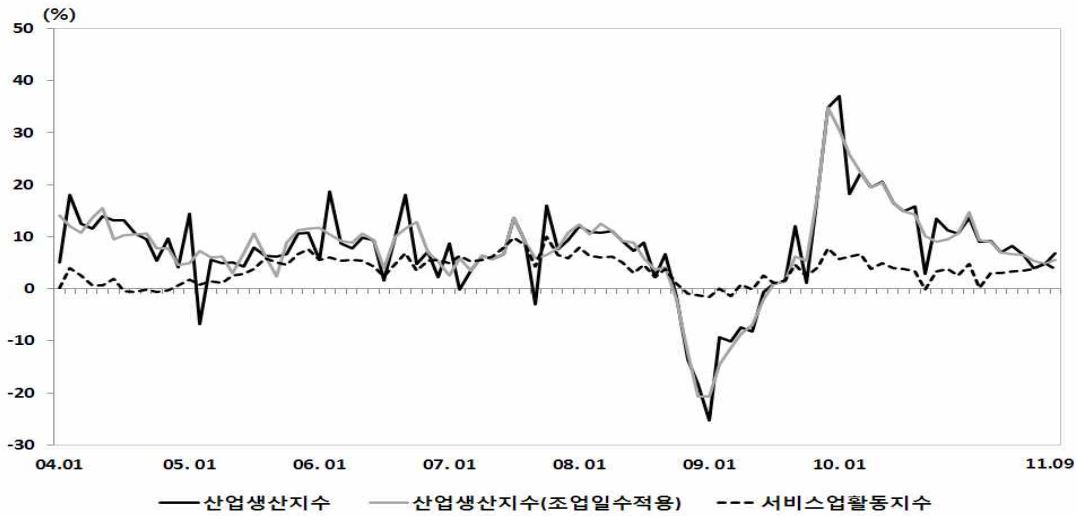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 산업생산도 광공업과 서비스 모두 증가세 둔화 추이

* 전산업생산지수(전월비) : 0.6%(2Q)→-1.6%(7월)→-0.2%(8월)→-0.1%(9월)
* 광공업생산(전월비) : 0.0%(2Q)→-0.4%(7월)→-1.9%(8월)→1.1%(9월)
* 서비스활동(전월비) : 1.0%(2Q)→0.4%(7월)→0.5%(8월)→-1.6%(9월)

<그림 Ⅰ-2> 산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활동지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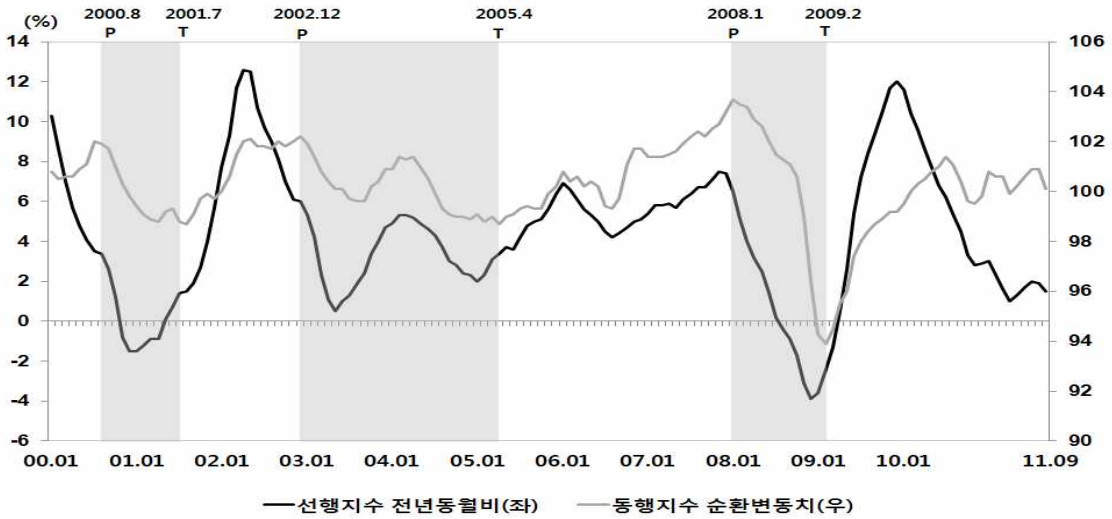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선행지표 추이나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도는 경기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

* 선행지수 전년동기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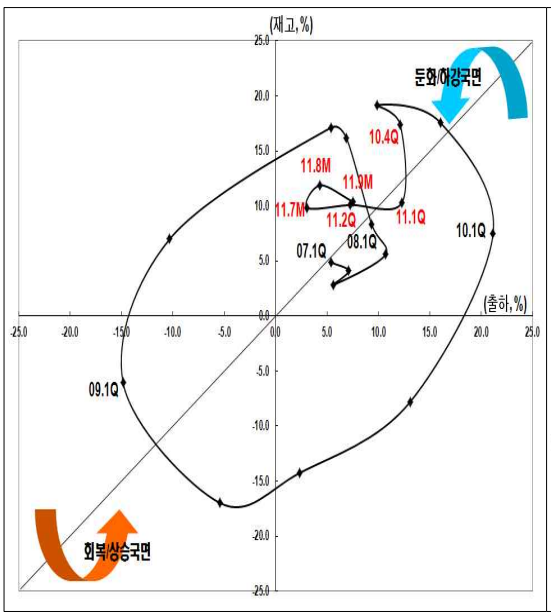
('11.6월) 1.7→ (7월) 2.0→ (8월) 1.9→ (9월) 1.5

<그림 Ⅰ-3> 경기종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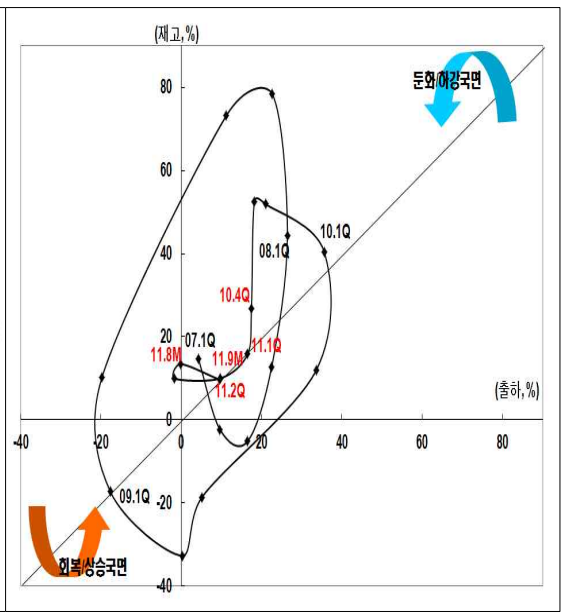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Ⅰ-4> 제조업 재고-출하순환



<그림 Ⅰ-5> 제조업ICT 재고-출하순환



2. 대외여건 전망

□ 세계경제 : 선진권 부진으로 성장 둔화

○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초까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온 세계경제는 최근 선진권의 재정위기 등이 부각되면서 뚜렷이 둔화되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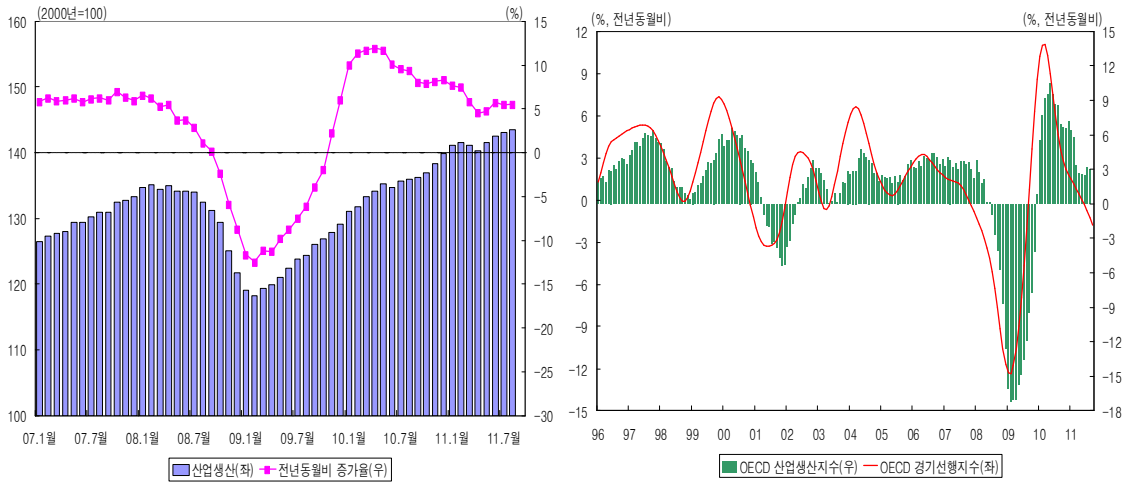
- 연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세와 인플레 우려 등으로 인해 긴축으로의 정책 선회가 확산되고, 3월 동일본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 여파로 일본경기가 급락하면서 세계 실물경기가 둔화

- 하반기 들어서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사의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조치(8월)에 이어 유로권 재정위기가 다시 주목 받으면서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

- OECD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6~9월중 4개월 연속 전년동기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세계경기가 둔화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

<그림 Ⅰ-6> 세계경제 관련 지표 추이

(a) 세계 산업생산지수 (b) OECD 경기지표



자료 : CPB; OECD.

○ 2012년 세계경제는 선진권의 재정불안에서 비롯된 부진이 지속되고 신흥권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체로 부진한 양상이 지속될 전망

- IMF는 선진권의 부진과 중국을 비롯한 개도권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금년과 2012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이 4.0%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

<표 Ⅰ-1>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구 분	2010					2011				201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연간(f)	
세 계					5.1				4.0	4.0
선진권	2.5	3.3	3.3	3.0	3.1	2.4	1.6	-	1.6	1.9
미 국	2.2 (3.9)	3.3 (3.8)	3.5 (2.5)	3.1 (2.3)	3.0	2.2 (0.4)	1.6 (1.3)	1.6 (2.5)	1.5	1.8
일 본	5.7	3.1	5.0	2.2	4.0	-1.0	-1.1	0.0	-0.5	2.3
유 로	0.8	2.0	2.0	2.0	1.8	2.4	1.6	1.4	1.6	1.1
개도권					7.3				6.4	6.1
중 국	11.9	10.3	9.6	9.8	10.4	9.7	9.5	9.1	9.5	9.0
세계교역					12.8				7.5	5.8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1.9월) 등

- 재정악화에 따라 선진권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고 유로권 재정위기는 상당기간 유로권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선진권은 내년까지 부진이 지속될 전망

  · 유로권 재정위기 문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2008,9년과 같은 세계경기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

- 중국은 선진권 부진의 영향, 물가불안 등으로 최근의 성장둔화추이가 이어지면서 9% 내외의 성장을 보일 전망

- 유가 안정에 힘입어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요국들의 경기연착륙 또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

□ 유가 : 세계경기 부진으로 소폭 하락 전망

○ 국제 유가는 연초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석유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4월까지 급등한 이후 선진국들의 재정위기 문제와 세계 실물경기의 둔화 우려로 하락세

- 연초 중동 국가들(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의 정정 불안 여파로 유가는 지난 5월초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20달러 수준까지 급등, 이후 유로권 재정위기 문제가 부각되면서 하락세로 전환

- 연간 유가의 변동 범위는 지난해 배럴당 65~95달러에서 올 들어서는 유종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80~126달러로 크게 확대

<표 Ⅰ-2> 국제 유가 추이

단위 : 달러/배럴, 기간 평균,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연평균	상반기	하반기	연평균
WTI	61.8 (-38.0)	78.3 (52.3)	80.6 (11.9)	79.5 (28.5)	98.4 (25.7)	88.8 (10.2)	94.6 (19.0)
Brent	61.8 (-36.6)	77.5 (49.6)	82.0 (14.8)	79.8 (29.3)	111.4 (43.7)	111.8 (36.4)	111.5 (39.8)
Dubai	61.7 (-34.1)	77.0 (48.8)	79.3 (10.7)	78.2 (26.5)	105.6 (37.1)	106.1 (33.8)	105.8 (35.4)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 : 2011년 하반기와 연평균은 2011년 10월 말 현재까지의 기준.

○ 2012년 국제 유가는 올해 연초 중동 변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이 없는 한, 세계경기 부진을 반영하여 보합 내지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단기적인 유가 변동의 주요 변수로는 유로권 재정위기 사태 전개와 미 달러화의 향방, 중동 정세 변화 등

- 본 전망에서는 돌발변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2012년 유가를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약 106~107달러(전년비 약 0.5% 하락)로 예상

<표 Ⅰ-3> 주요기관의 2012년 국제 유가 전망

단위 : 달러/배럴, %

유종	WTI			Brent			Dubai	3대평균
전망기관	EIA	PIRA	CERA[1)]	PIRA	CERA[1)]	CGES[2)]	CERA[1)]	IMF
전망시점	10.12	9.23	10.14	9.23	10.14	9.19	10.14	9.20
2011년	92.36	92.55	91.52	112.30	109.44	114.70	104.33	103.20
2012년 (상승률)	88.00 (-4.7)	89.65 (-3.1)	88.60 (-3.2)	108.65 (-3.3)	104.60 (-4.4)	101.90 (-11.2)	101.31 (-2.9)	100.00 (-3.1)

자료 : EIA; PIRA; CERA; CGES; IMF.

주 : 1) 시나리오별 전망치의 수정값 2) 기준유가 시나리오 전망

<표 Ⅰ-4> 2012년 국제 원유가 전망 (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단위 : 달러/배럴, 기간 평균

구 분	2011년			2012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Dubai유	105.6 (37.1)	108.5 (36.9)	107.0 (37.0)	104.0 (-1.5)	109.0 (2.7)	106.5 (-0.5)

주 : 1) 하반기와 연간은 2011년 10월 현재까지의 기준.

2) ( )는 각각 전기비 및 전년대비 기준.

□ 환율 : 하락기조속 높은 변동성 예상

○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하락기조에서 8월초 유로권 재정위기가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보인후 최근 다시 하락하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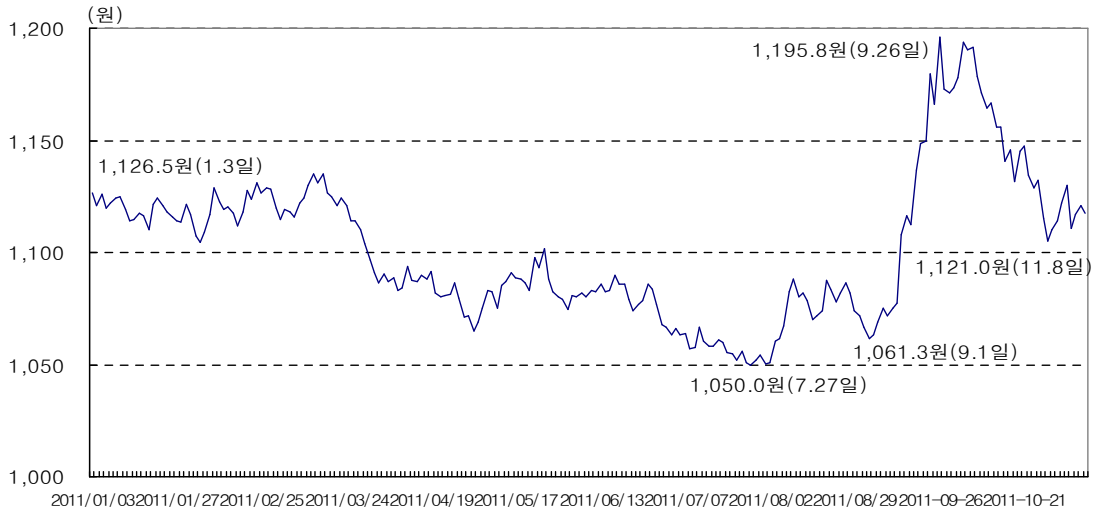
- 8월 이후의 원/달러 환율 급등세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美달러화 등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가 더욱 강화되어 급등락의 변동성은 상존

  * 1,126.5원 (연초 1.3일) → 1,121.0원 (11.8일), 0.4% 하락

  * 1,050.0원 (연저점 7.27일) → 1,121.0원 (11.8일), 6.7% 상승

  * 1,195.8원 (연고점 9.26일) → 1,121.0원 (11.8일), 6.2% 하락

<그림 Ⅰ-7> 2011년 원/달러 환율 추이



○ 2012년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기조와 국내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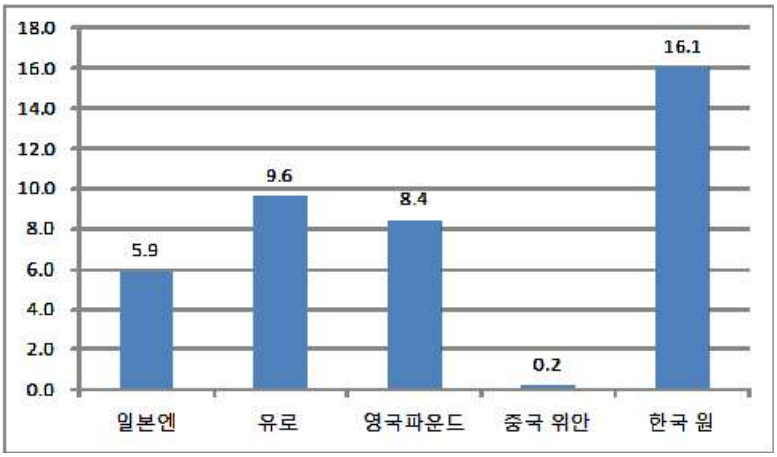
- 미국 달러화는 美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달러 신뢰도 하락, 초저금리 기조 유지, 美경제의 회복세 둔화로 약세 전망

- 국내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달러화 공급 증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나 유로존 금융불안 등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

  · 대외충격에 취약하고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한국경제 및 원화의 특성상 원/달러 환율은 최근 세계경제 불안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시현

- 유로존 위기 전개 추이, 美회복둔화 장기화 여부, 국내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

<그림 Ⅰ-8> 금융위기 이후 원화와 주요통화의 변동성 비교



주 : 2008년 이후 월별 대달러 환율의 전월비 증감율의 분산

○ 2012년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약 3.0% 하락한 1070원 내외로 예상

<표 Ⅰ-5> 원/달러 환율 전망치

단위 : 원

원/달러 환율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154	1157	1156	1101	1102	1101	1082	1052	1067

○ 엔화는 강세 추이가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유로권 위기가 더욱 악화되지 않는 한 일본정부의 엔고 억제 노력 등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2012년 연평균 원/엔 환율은 전년비 약 0.2% 하락한 1375~80원 정도로 예상

3. 2012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 2012년 3%대 중반의 성장 예상

○ 최근 세계경제의 둔화 추이와 부진 지속 전망을 반영하여 국내경제는 2011년에 3.7%, 2012년 3.7%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 부진이 2012년 연중 지속되면서 국내경제도 추세성장률에 못미치는 다소 낮은 성장을 보일 전망

- 세계경제 부진을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며, 민간 내수는 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유가안정에 힘입어 교역조건이 호전되면서 실질소득(GDI 및 GNI) 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여, 내수증가율은 금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높아질 전망

○ 수출은 세계경기 부진을 반영하여 증가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

- 2012년 수출은 약 7%, 수입은 약 8% 증가하여 무역흑자는 24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율 둔화와 더불어 유가 및 원자재가 안정에 따른 가격상승요인 소멸도 수출증가세 둔화에 기여

□ 유로권 재정위기를 비롯한 대외불안요인이 가장 큰 변수

○ 2012년 실물경제의 주요 변수는 대외적으로는 유로권 재정위기를 필두로 한 선진권 경기와 신흥권 파급 정도,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등

- 2012년 국내 경기의 주요 변수는 하방위험요인이 우세하며, 특히 유로권 재정위기의 전개 양상이 가장 중요한 변수

  · 유로권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전개과정에서 심각한 금융불안을 초래할 경우에는 세계경기가 급락하면서 국내경제 성장률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

- 아울러 유로권을 위시한 선진권 부진의 정도, 그와 연관된 중국 등 신흥권 경기에의 파급 정도 등 해외요인이 주요 변수

  · 중국의 경우 과잉투자, 자산버블이 예상보다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도 주요 위험요인

-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 건설경기 부진과 그 여파 등이 주요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표 Ⅰ-6>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 달러

	2011년			2012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3.8 <1.1>	3.6 <0.8>	3.7	3.4 <0.9>	3.9 <1.0>	3.7
민간소비	2.9	2.4	2.7	2.9	3.1	3.0
건설투자	-9.0	-1.7	-5.2	3.2	1.2	2.1
설비투자	9.4	2.8	5.9	3.5	6.4	4.9
통관기준 수출(억달러)	2,737	2,824	5,561	2,910	3,045	5,955
(%)	(23.7)	(15.2)	(19.2)	(6.3)	(7.8)	(7.1)
통관기준 수입(억달러)	2,581	2,685	5,266	2,781	2,934	5,715
(%)	(26.7)	(21.3)	(23.9)	(7.7)	(9.3)	(8.5)
무역수지	156	139	295	129	111	240
경상수지	81	124	205	64	66	130

주 : < >안은 전기대비 분기증가율의 반기 평균임.

(2) 부문별 전망

□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고용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GNI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최근 물가불안 등이 가세하면서 증가세는 완만

- 재화별로는 자동차 등 내구재소비가 전체 소비회복을 주도하고 있으며 비내구재나 서비스 소비 증가는 상대적으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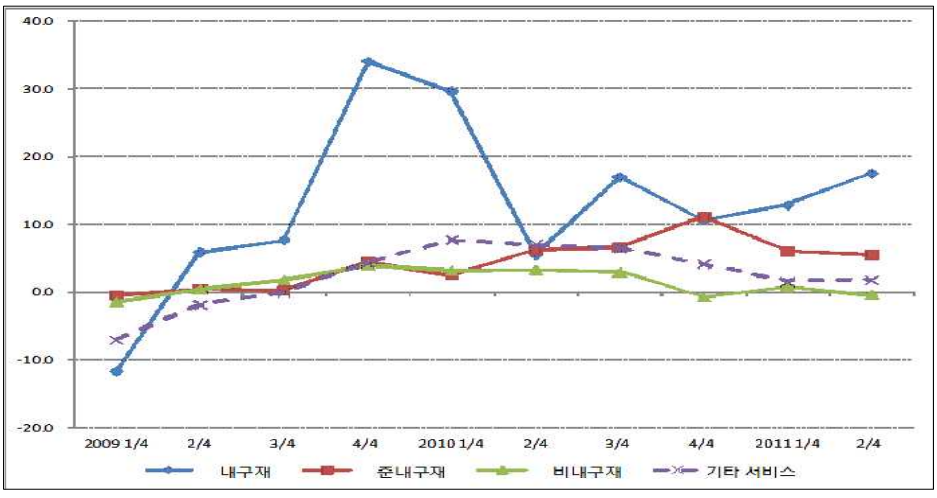
<표 Ⅰ-7> 민간소비 관련 지표 추이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민간소비	6.6	3.5	3.6	2.9	4.1	2.8	3.0	2.2
(국민계정)	(0.5)	(0.7)	(1.4)	(0.3)		(0.4)	(0.9)	(0.6)
소매판매액	9.7	4.9	7.5	5.1	6.6	5.1	5.7	4.4
지수	(-4.6)	(1.8)	(1.2)	(6.9)		(-4.6)	(2.4)	(-0.1)
실질 GNI	9.6	5.6	4.5	3.0	5.5	1.8	0.6	-
	(1.2)	(1.3)	(0.4)	(0.0)		(-0.1)	(0.2)	-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Ⅰ-9> 재화별 소비 추이

전년동기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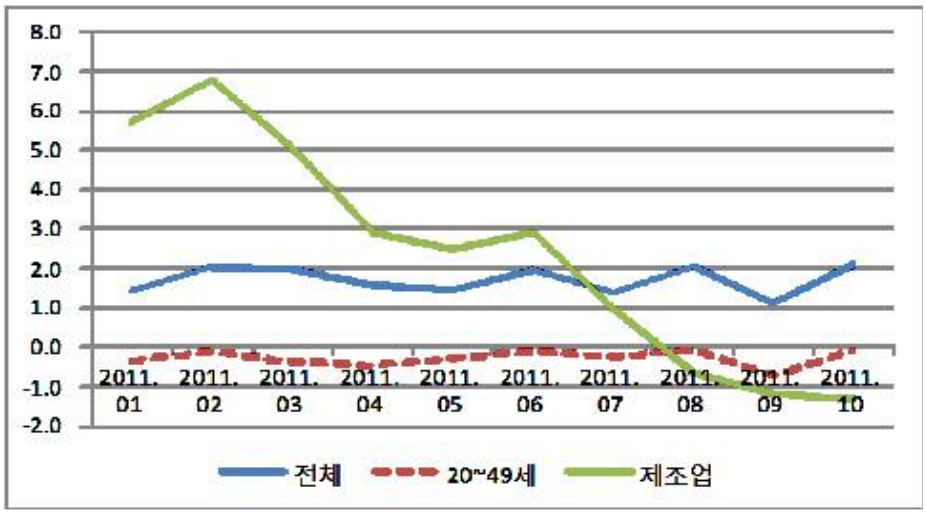
○ 고용은 취업자수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개선 추이를 지속하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내용면에서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

- 취업자 증가율이 1%대 후반 ~ 2% 수준에 머물면서 총량 고용은 개선 추이를 지속하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고용증가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나 중고년층에 편중되고 제조업 고용이나 핵심생산계층 고용은 다시 부진해지는 모습

- 전체 경기의 둔화 추이에 따라 2012년에는 고용회복세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그림 Ⅰ-10> 고용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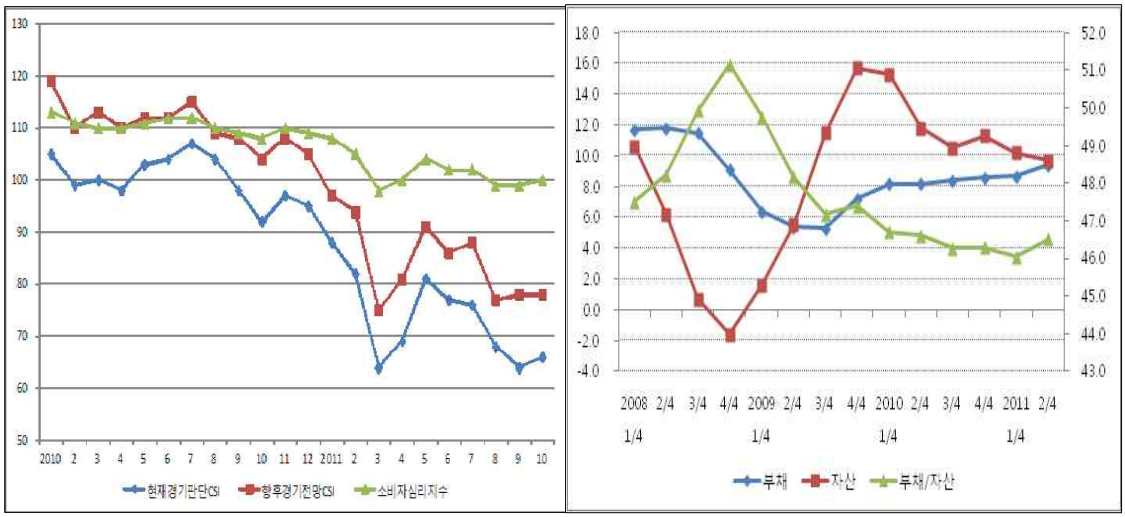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통계청.

○ 국내외 경기둔화와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하여 소비심리지표는 최근 악화되는 모습이고,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자산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가계부채/자산 비율은 다소 상승

<그림 Ⅰ-11> 소비심리지수 추이 <그림 Ⅰ-12> 가계부채 및 자산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자산 및 부채증가율은 좌축, 부채/자산 비율은 우축.

○ 2012년 민간소비는 금년보다 다소 높은 3% 내외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GNI 증가율이 금년에 비해 다소 높아지면서 소비증가를 견인할 전망

- 반면 고용 회복세의 둔화, 세계경기 불확실성 지속, 가계부채 부담 등이 소비회복을 제약하여 소비 증가율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

○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대기수요 해소 등으로 인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

* 설비투자 증가율(%) : 1/4분기 11.7 → 2/4분기 7.5 → 3/4분기 1.4

- 설비투자추계지수 증가율은 3/4분기에 전년동기비 마이너스(-3.5%)를 기록

- 형태별로는 기계류와 운수장비 모두 둔화세이며, 주체별로는 정

부 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져 1~2/4분기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표 Ⅰ-8> 설비투자 추이

전년동기비, %

		2010	2011		
			1/4	2/4	3/4
설비투자		25.0	11.7 (-1.1)	7.5 (3.9)	1.4 (-0.4)
주체별	민간	26.3	12.5 (-0.1)	8.2 (3.2)	-
	정부	0.4	-14.0 (-28.8)	-12.4 (29.8)	-
형태별	운수장비	6.7	3.2 (-1.2)	2.0 (4.2)	-
	기계류	30.8	13.9 (-1.1)	9.0 (3.9)	-
설비투자추계지수		25.1	6.6 (-0.2)	4.8 (3.0)	-3.5 (-0.9)
형태별	기계류	30.5	6.8 (-1.8)	7.0 (6.5)	-3.6 (-2.7)
	운송장비	4.3	5.6 (7.6)	-5.7 (-12.5)	-3.2 (8.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 설비투자 선행지표들도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는 모습

-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국내기계수주 및 설비투자조정압력도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이

- 산업별로는 IT산업의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2010년 3/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등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불리

<표 Ⅰ-9>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전년동기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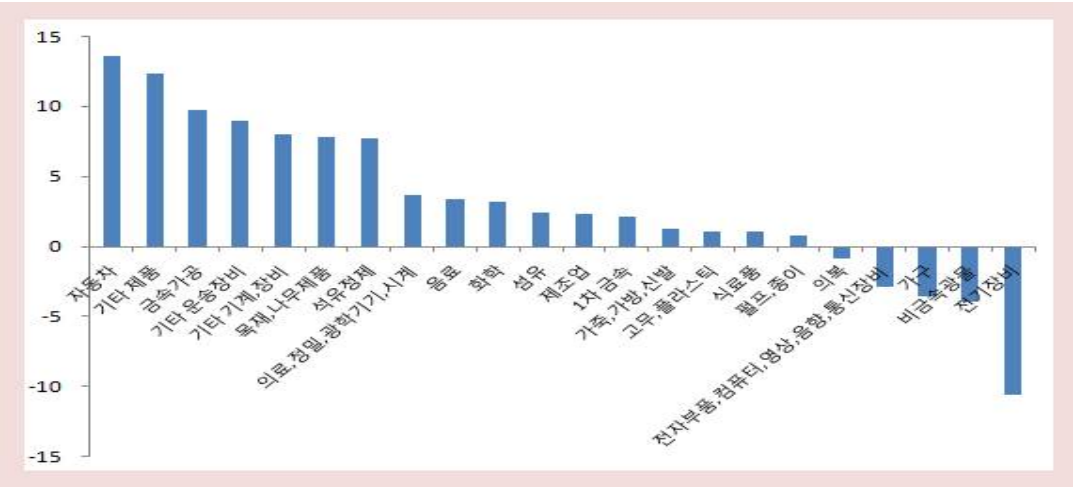
		2010	2011		
			1/4	2/4	3/4
국내기계수주 (선박제외)		11.2	19.5	8.2	1.3
수요자별	공공	-37.9	-10.3	82.0	5.6
	민간	21.8	22.7	3.1	1.0
설비투자조정압력		9.5	4.1	1.6	1.2

자료 : 통계청.

주 :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제조업 생산지수증가율-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

<그림 Ⅰ-13> 제조업 업종별 설비투자 조정압력 : 최근 3분기 평균

(%p)



자료 : 통계청.

주 :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생산지수증가율-생산능력 증가율.

○ 2012년에는 국내외 경기가 대체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설비투자는 낮은 증가에 머물 전망

- 2012년에도 세계 경제의 둔화 추이와 유로권 재정위기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설비투자에 불리한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달러 대비 원화의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엔고가 지속되면서 자본재 수입비용 부담은 크게 완화되지 않을 전망

- 산업별로는 반도체를 제외한 IT산업의 투자 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등 여타 부문의 투자도 완만한 증가에 그칠 전망

- 2012년 설비투자는 연간 5%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

○ 2011년 건설투자는 2010년부터 시작된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추이

* 건설투자 증가율(%) : 1/4분기 -11.9 → 2/4분기 -6.8 → 3/4분기 -4.2

- 건설기성액도 2011년 들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부문 건설투자가 특히 큰 폭 감소하였고, 형태별로는 건물 건설투자와 토목 건설투자 모두 극심한 부진 지속

<표 Ⅰ-10> 건설투자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10	2011		
			1/4	2/4	3/4
건설투자		-1.4	-11.9 (-6.7)	-6.8 (1.6)	-4.2 (2.2)
주체별	민간	3.1	-7.9 (-4.8)	-2.8 (5.6)	-
	정부	-11.1	-23.3 (-11.7)	-16.9 (-9.5)	-
형태별	건물	-2.9	-11.3 (-6.9)	-3.7 (3.3)	-
	토목	0.5	-12.7 (-6.5)	-10.4 (-0.5)	-
건설기성액		-3.3	-12.6 (-4.6)	-6.6 (3.5)	-8.6 (-6.1)
공종별	건축	-7.1	-15.2 (-6.4)	-8.4 (1.5)	-8.1 (-3.5)
	토목	2.2	-9.2 (-2.2)	-4.3 (6.1)	-9.3 (-9.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 다만 건설투자 선행지표는 하반기 들어 위축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

- 건설수주는 2011년 3/4분기 들어 2010년 1/4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건설허가면적도 최근 3분기 연속 플러스 증가율 시현

-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위축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고, 민간부문 건설수주는 3분기 연속 플러스 증가율 시현

- 공종별로는 토목건설수주가 위축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축건설수주가 2011년 3/4분기에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

<표 Ⅰ-11> 건설투자 선행지표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10	2011		
			1/4	2/4	3/4
건설수주액		-18.7	-12.8	-3.3	0.9
발주자별	민간	2.8	18.2	0.5	6.8
	공공	-43.7	-49.1	-11.9	-6.1
공종별	건축	-9.9	-9.7	-4.0	8.6
	토목	-29.5	-17.0	-1.5	-11.0
건설허가면적		19.3	21.5	3.8	58.7

자료 : 통계청, 건설수주액은 경상 금액 기준. 국토해양부.

○ 최근 선행지표 추이 등을 고려할 때 2012년 건설투자는 감소세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회복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낮은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

- 그동안의 극심한 부진에 대한 반등과 기저효과로 2012년 건설투자는 플러스 증가율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 단, 가계부채 문제와 미분양 적체 문제, 건설사 자금난 문제와 구조조정 문제, 공공부문의 재정여력 소진에 따른 SOC 예산 축소

등이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낮은 증가에 그칠 전망

- 2012년 건설투자는 연간 2%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표 Ⅰ-12> SOC 분야 투자 실적 및 계획

	'06	'07	'08	'09	'10	'11	'12
SOC예산 (조원)	18.4	18.4	20.5	25.5 <0.8>	25.1 <3.2>	24.4 <3.1>	22.6 <0.3>
증가율(%)	-	0.0	11.4	24.4	-1.6	-2.8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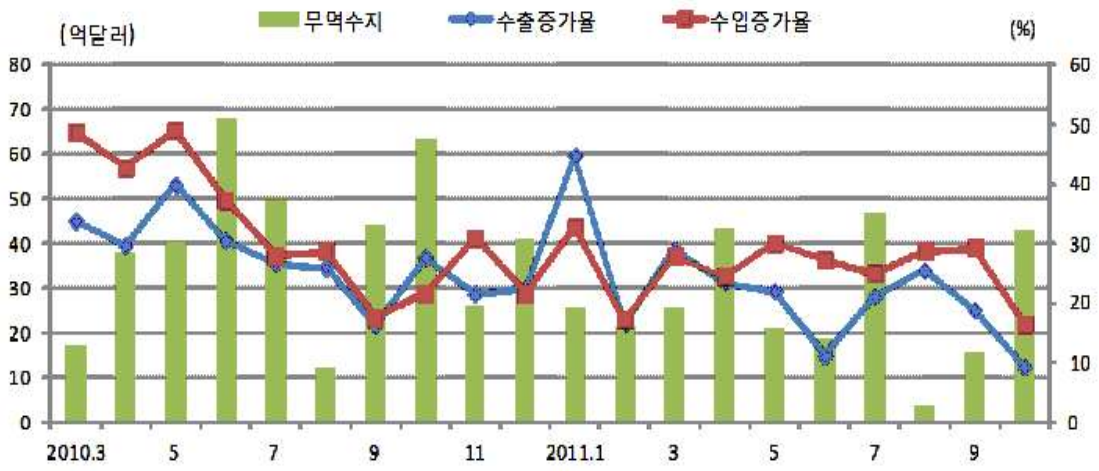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 : 증가율은 전년대비. < > 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 수출입

○ 2010년에 28.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던 수출은 2011년 들어와서도 10월까지 21.4% 증가한 4,62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 8월 이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유로권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선진권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증가율은 둔화 추세

<그림 Ⅰ-14> 수출입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



○ 선진권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수출단가의 상승,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반사이익, 신흥국의 성장세, 금융위기 이후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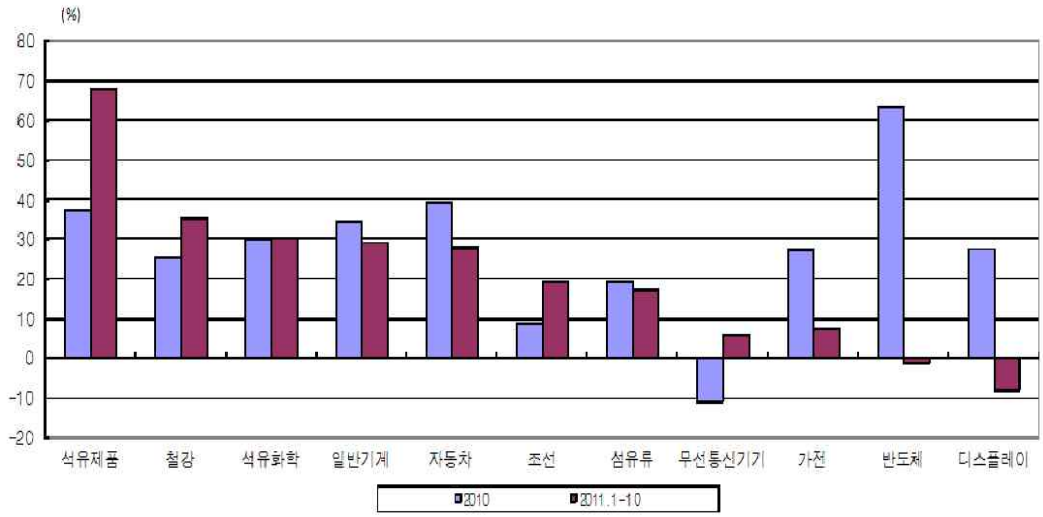
- 신흥국 성장세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와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석유제품, 철강, 석유화학 수출이 크게 증가

-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기업 생산차질로 대일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및 부품 등의 분야에서 일본 수출부진의 반사이익

- 그동안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확대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자동차, 조선, 기계류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확대

○ 업종별로는 석유제품,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섬유류 등 비IT산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반도체를 비롯한 IT산업의 수출은 부진

<그림 Ⅰ-15> 2011년 업종별 수출입 증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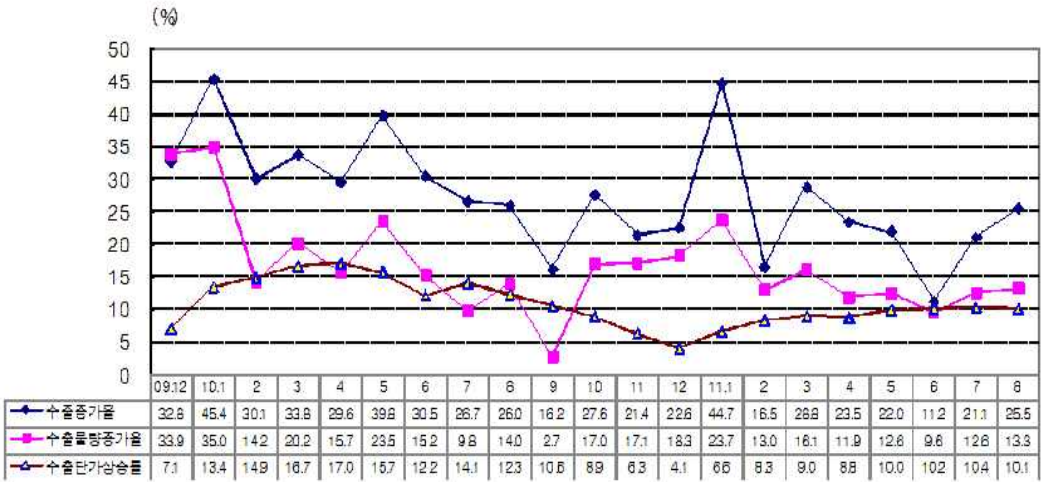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선진권 수요 위축과 D램 가격 및 패널가격의 하락으로 감소세 지속, 상반기 회복세를 보였던 무선통신기기는 해외 생산 확대와 스마트폰 특허분쟁 등으로 감소세 전환

○ 수출입의 변화를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1년 1~8월 중 수출물량은 신흥국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13.9%나 증가하였으며, 수출단가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9.2% 상승

- 반면, 수입의 경우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17.8%)하였으며, 가격상승으로 수입물량 증가율은 다소 위축(8.5%)

<그림 Ⅰ-16>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추이



	09.12	10.1	2	3	4	5	6	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8
수출증가율	32.8	45.4	30.1	33.8	29.6	39.8	30.5	26.7	26.0	16.2	27.6	21.4	22.6	44.7	16.5	28.8	23.5	22.0	11.2	21.1	25.5
수출물량증가율	33.9	35.0	14.2	20.2	15.7	23.5	15.2	9.8	14.0	2.7	17.0	17.1	18.3	23.7	13.0	16.1	11.9	12.6	9.8	12.6	13.3
수출단가상승률	7.1	13.4	14.9	16.7	17.0	15.7	12.2	14.1	12.3	10.6	8.9	6.3	4.1	6.6	8.3	9.0	8.8	10.0	10.2	10.4	10.1

○ 2011년 수입은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 확대로 원자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재도 자동차, 육류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자본재는 설비투자 부진으로 낮은 증가세

<표 Ⅰ-13> 용도별 수입 추이

	수입증가율(%)		수입비중(%)	
	2010	2011(1~9)	2010	2011(1~9)
원자재	34.1	35.3	59.9	62.6
자본재	28.2	10.7	30.5	27.4
소비재	27.8	30.1	9.5	9.9
총수입	31.6	27.0	100.0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1년 연간 수출증가율은 19.2%, 수입증가율은 2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95억 달러로 전망

○ 2012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수출단가 안정, 대일 반사이익 소멸, 원화절상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7.1%로 크게 낮아질 전망

- 선진권 부진으로 대선진국 수출 뿐만 아니라 신흥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점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의 수출도 둔화될 전망

- 일본의 조업 정상화로 세계시장에서 반도체, 전자제품 등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2011년에 크게 늘어났던 대일수출 효과도 소멸될 것으로 기대

○ 2012년 수입도 국내 경기의 성장 둔화와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2011년보다 크게 둔화된 8% 대 증가에 그칠 전망

○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은 2011년보다 축소된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표 Ⅰ-14> 2012년 수출입 전망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11년			2012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통관기준 수출	2,737 (23.7)	2,824 (15.2)	5,561 (19.2)	2,910 (6.3)	3,045 (7.8)	5,955 (7.1)
통관기준 수입	2,581 (26.7)	2,685 (21.3)	5,266 (23.9)	2,781 (7.7)	2,934 (9.3)	5,715 (8.5)
무역수지	156	139	295	129	111	240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Ⅱ. 주요산업 전망

1. 2011년 동향

□ 내수는 실물 경기 둔화와 기저효과로 증가세 큰 폭 둔화

○ 10대 주력산업의 내수는 실물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과 기저효과로 2010년보다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소재산업이 내수 성장을 주도

- 철강은 자동차와 플랜트 등 수요산업의 생산 호조와 재고수요 증가로 6.3% 증가, 석유화학은 할당관세와 수요산업 수출호조로 4.6%, 섬유는 수요산업 호조로 7.0% 증가

- 일반기계는 설비투자 둔화로 2.9% 증가, 자동차는 노후차량 대체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소비심리 위축되면서 2.3% 증가

- 정보통신기기는 스마트 모바일기기 수요확산에 힘입어 15.2%로 증가율이 높으나, 가전은 한정된 소득 하에서 스마트폰 구매 증가에 따른 가전기기 구매 여력 축소로 3.3%의 낮은 증가

- 반면, 디스플레이는 패널가격 급락과 수요제품 판매 부진으로 12.8%의 큰 폭 감소, 반도체도 PC 등 IT제품 수요 위축으로 3.7% 감소, 조선도 경기 냉각으로 6.7% 감소

□ 신흥국 수요 증가로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14% 증가세

○ IT산업군[1] 수출이 부진한 양상 속에서 비IT산업군 업종들이 두 자

1) IT산업군은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이고, 비IT산업군은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의 기계산업군, 철강, 석유화학, 섬유의 소재산업군.

리 수의 높은 수출 증가를 나타내면서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비IT산업군의 수출 증가율이 23%로 높은데 비해 IT산업군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부진으로 0.1% 증가에 그쳐 극명하게 대조적인 실적 기록

- 철강이 신흥국 수요 증가와 국제가격 강세로 31%의 매우 높은 증가, 석유화학도 국제 유가·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28% 증가, 섬유는 대개도국 수출 확대로 15% 증가

- 일반기계는 신흥국의 수요 지속과 선진국의 수요 회복으로 28% 증가, 자동차는 고유가로 인한 해외 소형차 수요 확대와 일본업체의 대지진에 따른 생산 차질의 반사 이익으로 25% 증가, 수주잔량 감소로 건조량이 감소한 조선은 10%로 증가세 대폭 둔화

- IT산업군에서는 현지 생산용 가전부품 수출과 스마트폰 수출이 늘어난 가전과 정보통신기기가 각각 6%와 3% 증가

- 이에 비해 선진국 TV시장 부진에 따른 수요 침체의 디스플레이가 4% 감소, PC용 D램 수출이 감소한 반도체는 2% 감소

□ 수출 호조로 생산 증가세 지속

○ 10대 주력산업의 생산은 조선과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업종이 대부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한 일반기계가 1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섬유와 자동차 및 철강도 내수와 수출 호조로 7%씩 증가

- 이밖에 정보통신기기는 스마트폰 내수와 수출 호조로 5% 증가, 가전은 재고 증가 및 기저효과로 3% 증가

- 그러나, 단가가 하락한 반도체는 정체, 수출 부진 및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기준 생산액이 줄어든 디스플레이는 9% 감소, 조선도 건조량 감소로 1% 감소

□ **10대 주력산업 수입은 소재 수입 증가로 13% 증가**

○ 비IT산업군 업종들의 수입이 15~30%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10대 주력산업의 수입은 13%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저가 임가공 의류 역수입이 크게 늘어난 섬유와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 이용하기 위한 재고 수요가 증가한 석유화학이 각각 34%, 31%로 매우 높은 증가율

- 수입업체의 차종 다양화와 가격 인하 전략으로 수입이 증가한 자동차와 수입단가가 상승한 철강은 각각 20%와 15%로 비교적 높은 증가

- IT산업군은 8%로 여타 산업군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은 편

2. 2012년 전망

□ **제조업 내수는 전반적으로 부진**

○ 고용불안, 가계소득 부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세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제조업 내수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전망

○ IT제품군은 정보통신기기의 호조 지속과 가전의 수요 회복이 예상

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완만하나마 회복기조로 전환

- 정보통신기기는 4G 서비스 활성화와 신규 스마트기기 수요 증가로 9% 증가하고 가전은 런던 올림픽 및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에 따른 특수에 힘입어 5% 증가

- 2011년 10% 이상 감소했던 디스플레이는 기저효과로 인해 11% 증가하고 반도체는 시스템 및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 확대로 6% 증가

○ 기계산업군의 경우 일반기계 내수는 양호하나, 자동차와 조선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는 신성장동력 생산장비 개발용 신규투자로 4% 증가하나, 자동차는 소비심리 위축과 신차효과 약화로 0.3% 증가로 정체,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으로 발주가 침체국면인 조선도 1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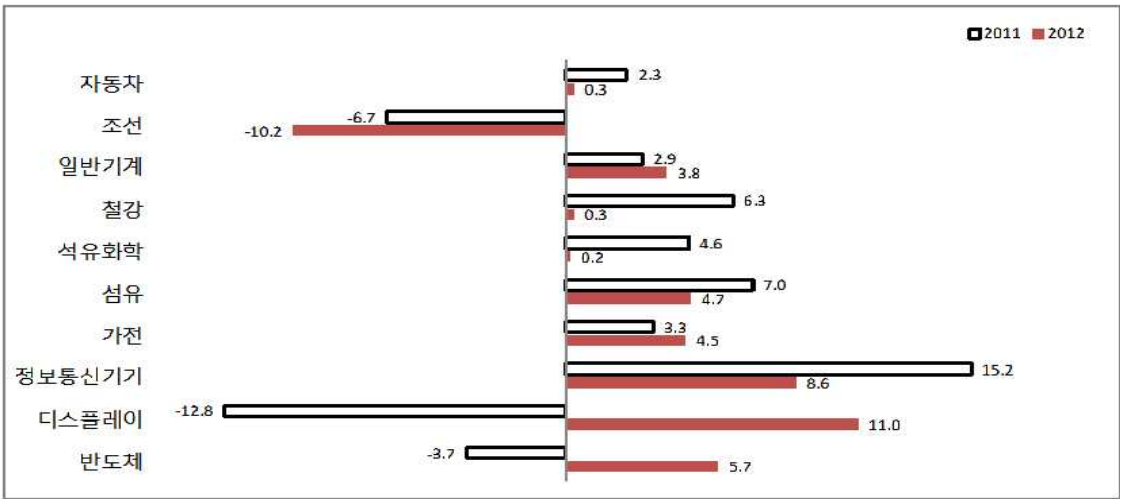
○ 소재산업군은 건설경기 부진, 전방산업의 성장 둔화, 구매력 둔화 등으로 0~5%의 미약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섬유는 유가 하락 등으로 실질소득이 다소 개선되면서 소비가 늘어나 5%로 소재산업군 중 높은 증가

- 그러나, 철강은 건설, 조선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인한 수요 둔화로 0.3% 증가에 그치고, 석유화학도 자동차 등 수요산업 부진과 기저효과로 0.2% 증가에 그칠 전망

<그림 Ⅱ-1> 2012년 주요 산업별 내수증가율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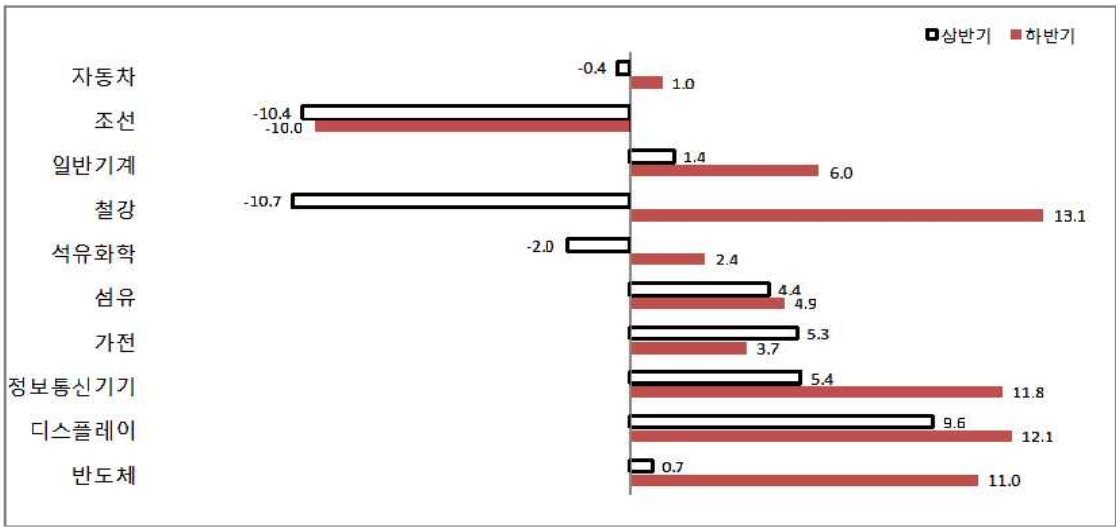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올림픽 특수의 가전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내수는 하반기에 성장률이 더 높은 상저하고 형태를 보일 전망

<그림 Ⅱ-2> 2012년 주요 산업별 상·하반기 내수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6.5% 증가로 대폭 둔화

○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신흥시장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6.5%로 증가세가 대폭 둔화될 전망

- 10대 업종의 수출 증가율은 2009년과 10년의 특수상황을 제외하면, 2006년 13.9%, 2007년 14.9%, 2008년 9.2%, 2011년 15%로 대체로 10% 대 이상 수준이었는바, 2012년의 증가율은 예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중국, 동남아 등 신흥국의 수입수요가 유지되고 국내 업체들의 수출 확대 노력에 힘입어 소재산업군이 12% 증가하면서 수출을 주도할 전망

- 석유화학은 신흥국의 상대적 고성장세에 따른 합성섬유 중간원료, 합성원료, 합성고무 등의 수요 확대로 14%의 높은 증가

- 철강은 중후판, 봉강, 철근 등의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적극적 수출 확대전략과 신흥국의 철강 수입수요 지속으로 13% 증가

- 섬유는 해외생산 확대로 폴리에스테르 섬유 공급 확대와 산업용 섬유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어 8% 증가

○ 기계산업군은 신흥국 수요 증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일반기계와 자동차 수출은 호조이나, 조선의 부진으로 5%의 낮은 증가

- 자동차는 EU FTA 및 미 FTA 수혜, 브랜드 인지도 제고, 신흥국 수요 증가 등으로 10% 증가할 전망

- 일반기계는 제1 수출시장인 중국의 높은 고정자산 투자 지속과 중동지역의 플랜트 기자재 수요, 굴삭기 등 건설중장비 수요 확대로 15% 증가할 전망

- 반면, 조선은 금융위기 이후 수주 공백기 영향 및 수주잔량 감소로 8% 감소할 전망

○ 런던 올림픽 특수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IT산업군 수출은 3.5% 증가하면서 2011년의 부진에서 회복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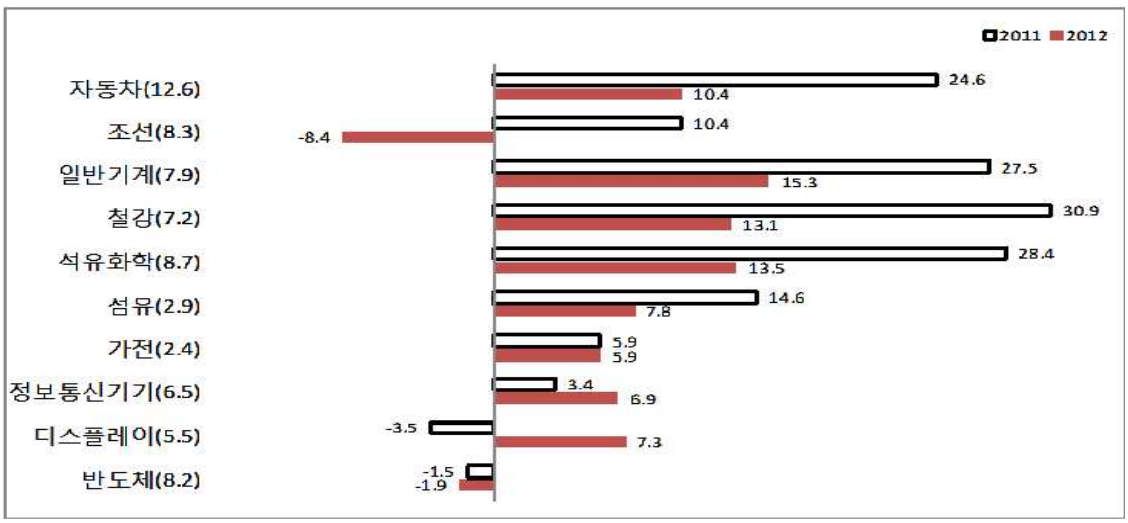
- 디스플레이는 올림픽 특수와 IT기기의 글로벌 수요 증가, 패널가격의 안정화 등으로 2011년의 감소에서 7% 증가로 전환

-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입지 강화 및 4G 이동통신시장이 확대되는 정보통신기기는 7% 증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우위 지속 및 디지털 TV의 올림픽 특수가 기대되는 가전은 6% 증가

- 반면, 스마트폰 등의 시장 확대로 시스템 반도체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트북 PC기능의 스마트폰 대체로 D램 수출이 급감하는 반도체는 2% 감소

<그림 Ⅱ-3> 2012년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 )은 2012년 총수출 대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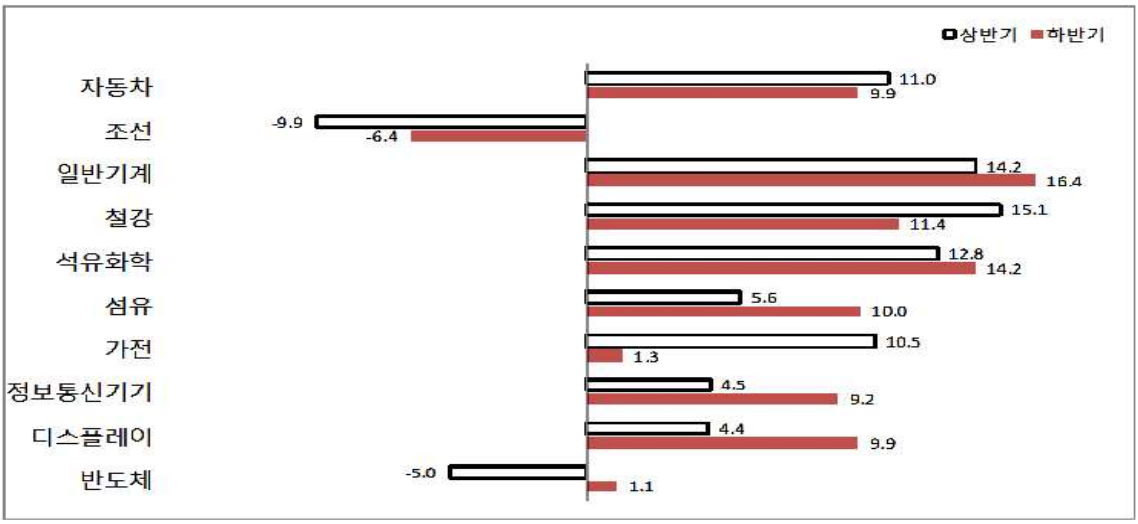
○ 10대 주력산업의 상·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기저효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업종별로 상이

- 자동차와 철강은 기저효과로, 가전은 올림픽 특수효과로 상반기의 수출이 하반기보다 높을 전망

- 일반기계와 섬유, 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 회복세 기대로,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는 기저효과로 하반기의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높을 전망

<그림 Ⅱ-4> 2012년 산업별 상·하반기 수출증가율 전망

단위 : %



○ 10대 주력 업종의 수출 증가율이 총수출 증가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수출 대비 비중이 2011년 70.7%에서 2012년 70.3%로 다소 낮아질 전망

- 2012년 총수출 대비 비중이 높은 품목은 자동차(12.6%), 석유화학(8.7%), 조선(8.3%), 반도체(8.2%), 일반기계(7.9%) 등으로 5개 산업의 총수출 대비 비중 합계는 45.7%에 이를 전망

<표 Ⅱ-1> 주요 산업군별 2012년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IT산업	130,682 (25.6)	64,334 (4.0)	66,418 (-3.5)	130,752 (0.1)	65,276 (1.5)	70,053 (5.5)	135,329 (3.5)
비IT산업	213,836 (27.3)	132,803 (29.9)	129,377 (16.0)	262,180 (22.6)	142,076 (7.0)	141,198 (9.1)	283,274 (8.0)
(기계산업군)	135,347 (27.9)	84,746 (30.3)	77,848 (10.7)	162,594 (20.1)	88,044 (3.9)	83,254 (6.9)	171,298 (5.4)
(소재산업군)	78,489 (26.3)	48,057 (29.0)	51,529 (24.9)	99,586 (26.9)	54,032 (12.4)	57,944 (12.4)	111,976 (12.4)
10대 주력업종	344,518 (26.6)	197,137 (20.1)	195,795 (8.5)	392,932 (14.1)	207,352 (5.2)	211,251 (7.9)	418,603 (6.5)

주 :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기준임.

<표 Ⅱ-2> 10대 주력 산업의 2012년 수출 호조·부진 품목 전망

	수출 호조 품목(부품)	수출 부진 품목(부품)
자동차	· 소형승용차 · 친환경차용 배터리 · 변속기, 브레이크 관련 부품 등	· SUV
조선	· 기 확보된 물량의 생산으로 시추선, FPSO 는 다소 증가(약 10% 내외)	· 수출규모 유지 품목인 컨테이너선, 유조선은 기저효과로 다소 감소 · 선박용 엔진의 대중 수출도 자국 생산증가에 따라 감소 전망 · 건조물량 소진과 중소조선 구조조정으로 벌크선 수출도 감소
일반기계	· 굴삭기를 중심으로 한 건설중장비	· NC선반, 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류 · 프레스금형, 플라스틱금형 등
철강	· 중후판, 봉강, 철근 등 수출여력 확대로 약 10%대의 수출증가 예상 · 동남아 진출 철강제품 가공센터로의 열연 10% 내외 수출 증가 기대	· 전기강판, 선재 등 국내수요가 활발한 일부 품목의 해외수출 여력이 부족한 품목에서 5% 내외 수출감소 예상 · 아연도강판, 기타도금강판 등 수출경쟁 심화로 5% 내외 감소 예상
석유화학	· 주력시장인 중국에서의 급격한 수요증가로 기초유분(부타디엔, BTX), 중간원료(PX), 합섬원료(PTA/PET, EG, 카프로락탐) 및 합성고무(BR/SBR)는 호조 지속 전망(25~60%의 수출 증가 예상)	· 합성수지(PE/PVC, ABS/PS 등)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수출 -5~8% 증가 예상)
섬유	· 폴레에스테르섬유, 편직물, 화섬사 및 직물, 의류 부자재 등은 해외 현지 생산 확대로 수출 확대 · 타이어코드, 부직포 등 산업용섬유 수출 확대	· 선진권의 경기 부진으로 의류 수출 둔화 · 손수건, 실내용품, 모포 및 여행용 러그, 텐트 등은 가격 경쟁 심화로 수출 둔화 예상
가전	· 디지털TV는 런던 올림픽 특수로 10%이상 증가 · 디지털카메라의 경쟁력 강화로 해외수요 증가 · LED조명기기 수요 증가	· 양문형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프리미엄 생활가전은 유럽과 브라질 등에서의 현지생산 확대로 5% 미만 증가
정보통신기기	· 스마트폰은 해외생산 확대의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성장세 지속 전망 · 태블릿·노트북은 신제품 수요 증가 지속으로 증가세 전망 · 프린터, 모니터도 소폭 증가 예상 · 보조기억장치(SSD)는 HDD시장 축소의 영향 등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 예상	· 피처폰은 스마트폰 수요 확대로 감소 · 유선통신기기는 성장 둔화 또는 감소 · 데스크톱PC는 성장세 둔화 · 컴퓨터부품은 해외생산 확립으로 감소, 특히 하드디스크는 크게 감소할 전망
디스플레이	· AMOLED 패널은 세계시장점유율 98%로 독점화되면서 50% 내외 증가 기대 · 올림픽 특수로 대형LCD 패널의 수출도 회복 · IPS 패널 선호도 증가, 스마트기기 수요 확대 등으로 중소형 LCD 패널 수출도 10%이상 증가	· PDP는 수요한계로 수출 정체 또는 5% 미만 증가
반도체	·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기기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요확대로 10%미만 증가 예상 · 프리미엄 D램(서버용, 모바일용, 그래픽용 D램 등)은 스마트폰 호조로 5%이상 증가 예상	· 메모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용D램은 PC시장의 급감으로 10% 이상 감소 예상 · 낸드플래시도 스마트폰에 의한 컴팩트 카메라, 게임기 등의 위축으로 5%이상 감소 예상

□ **내수와 수출 둔화로 생산도 증가세 둔화**

○ 내수 회복세 미약, 수출환경 악화,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 기반 약화 등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이 둔화될 전망

○ 기계산업군은 일반기계와 자동차 생산은 증가하나 조선은 감소할 전망

- 일반기계는 해외 수요 증가로 8%로 비교적 높은 증가, 내수 정체를 수출이 보전하는 자동차는 3% 증가

- 조선은 수주량이 건조량 규모에 못미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11% 감소할 전망

○ 소재산업군은 설비능력 확대, 상대적으로 호조세인 수출에 힘입어 1~5%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

- 철강은 신증설 설비가 증가하고 제철원료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되면서 4% 증가, 섬유는 수출 증가와 원자재가 하향 안정세로 5% 증가

- 석유화학은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1%대의 낮은 증가

○ IT산업군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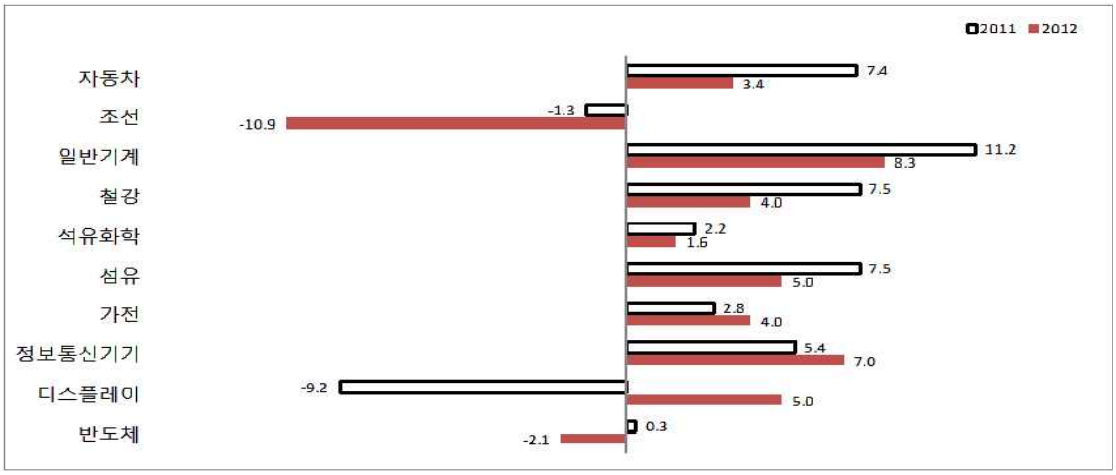
- 정보통신기기는 통신 인프라 증설 및 고도화 투자와 수출 확대로 7% 증가

- 디스플레이는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AMOLED 경쟁력 격차 확대로 5%의 높은 증가, 가전은 올림픽 특수로 디지털영상기기의 내수와 수출 증가에 따라 4% 증가

- 그러나, 후발업체의 기술추격이 국내 업체를 압박하는 가운데, 노트북의 수요 감소로 반도체는 2% 감소

<그림 Ⅱ-5> 2012년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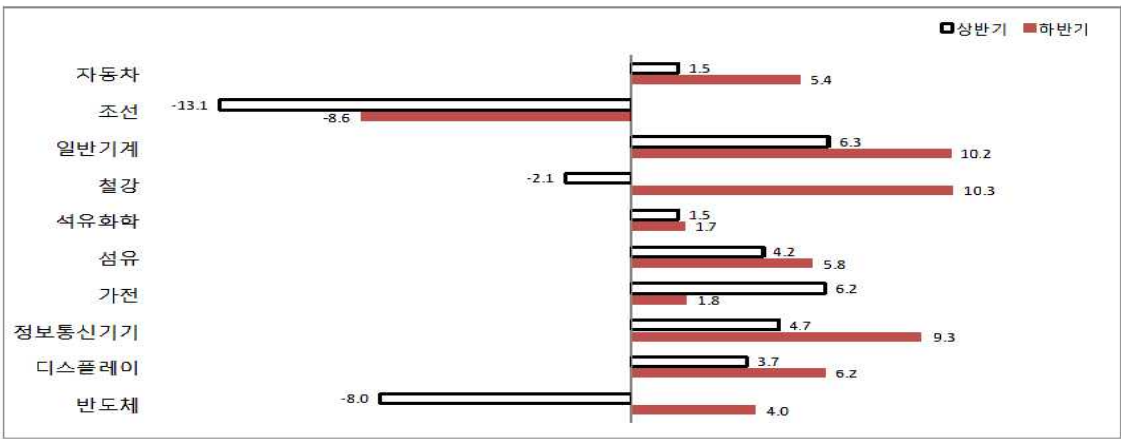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가전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하반기 증가율이 상반기 증가율보다 더 높을 전망

<그림 Ⅱ-6> 2012년 산업별 상·하반기 생산증가율 전망

단위 : %



□ 10대 주력업종 수입은 내수 및 수출 둔화로 4%의 소폭 증가

○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해외생산제품의 역수입 및 저가제품 수입 등으로 3.8% 증가하며 IT산업군 수입 증가율이 높을 전망

○ IT산업군은 국내 생산이 부족한 부품의 수입, IT신제품 수요 확대, 해외 생산 제품 및 부품의 역수입 증가, 외국 브랜드들의 국내시장 공략 강화 등으로 6.5% 증가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신규 외산제품 출시 확대와 경쟁국 기업의 저가 전략 강화로 10% 증가

- 디스플레이는 IT용 소형 패널 공급능력 부족분과 수출용 수입수요가 늘어나면서 8% 증가할 전망

- 가전은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제품 역수입 및 저가제품 수입 증가로 6% 증가, 반도체는 국내 미생산 시스템반도체 및 전력반도체 수요 증가로 5% 증가

○ 수입차 증가와 외국산 첨단장비 도입이 늘어나는 기계산업군은 5% 증가할 전망

- 자동차는 EU FTA 및 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와 신규 브랜드 진입으로 완성차와 부품 수입이 늘어나 10% 증가할 전망

- 일반기계는 반도체장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한 첨단 장비수입으로 5% 증가할 전망

- 반면, 조선은 국내 건조량의 감소로 중국 현지공장에서 가공한 블록의 반입 규모가 줄어들면서 9% 감소할 전망

○ 소재산업군은 업종별로 수입수요 편차가 큰 가운데, 수입규모가 큰 철강의 수입 감소로 1% 감소할 전망

-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특화제품 수입 증가, 전방산업의 수요 지속 등으로 10%의 높은 증가

- 섬유는 채산성 개선을 위한 저가 섬유소재와 중저가 의류 수입 확대, 해외 생산품의 역수입 증가 등으로 12%의 높은 증가

- 반면, 철강은 열연과 후판제품의 국내공급이 늘어나면서 동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8% 감소할 전망

<표 Ⅱ-3> 주요 산업군별 2012년 수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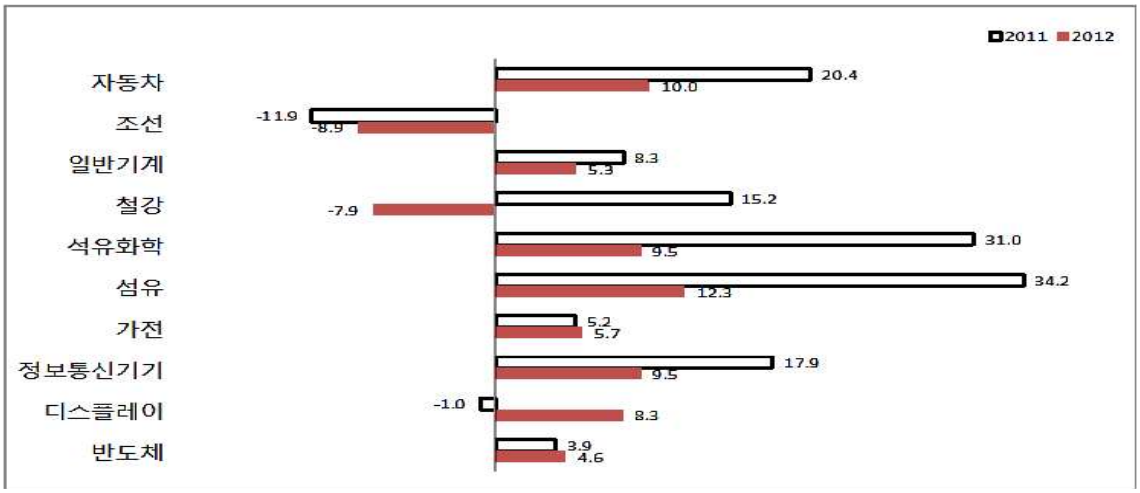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IT제조업	55,754 (19.8)	30,071 (15.6)	29,960 (0.7)	60,031 (7.7)	31,555 (4.9)	32,377 (8.1)	63,932 (6.5)
비IT제조업	93,114 (27.0)	53,675 (19.9)	54,869 (13.5)	108,544 (16.6)	54,083 (0.8)	57,017 (3.9)	111,100 (2.4)
(기계산업군)	39,049 (20.5)	20,790 (12.6)	21,487 (4.4)	42,277 (8.3)	21,640 (4.1)	22,706 (5.7)	44,346 (4.9)
(소재산업군)	54.065 (32.1)	32.885 (24.9)	33.382 (20.3)	66.267 (22.6)	32.443 (-1.3)	34.311 (2.8)	66.754 (0.7)
10대 주력업종	148,868 (24.2)	83,746 (18.3)	84,829 (8.6)	168,575 (13.2)	85,638 (2.3)	89,394 (5.4)	175,032 (3.8)

주 :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기준임.

<그림 Ⅱ-7> 2012년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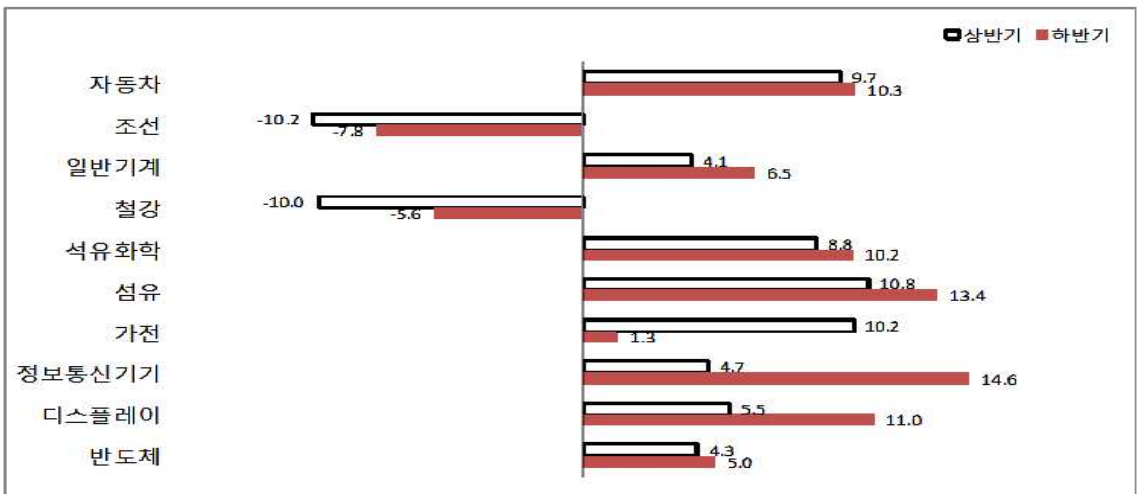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 가전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하반기의 수입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높고, 수입 감소 산업의 경우 조선과 철강은 상반기의 수입 감소율이 더 클 것으로 전망

<그림 Ⅱ-8> 2011년 업종별 상·하반기 수입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표 Ⅱ-4> 2012년 산업전망 기상도

	내수	생산	수출	수입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디스플레이	☼☼	☼	☼	☼
반도체	☼	🌧	🌧	☁

주 : 1) 전망 :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10% 이하☂☂, -5%～-10 ☂, -5～0% 🌧, 0～5% ☁, 5～10% ☼, 10% 이상 ☼☼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3. 정책적 시사점

□ 수출 인프 지원 및 한- T 적 활용으로 수출 기회 확대

○ 중소수출기업의 FTA 관련 애로 지원

- 자동차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무료 원산지 증명 지원사업, 관세사 고용비용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 신흥국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 지원과 문화 콘텐츠 진출 지원

- 신흥시장 방송국에 다양한 3D형식 콘텐츠 양산을 지원하여 한국의 3DTV와 3D콘텐츠 진출 통로 모색

○ 미국 수입 관세율 높은 품목의 대미 수출확대 노력

-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관세율이 높은 섬유, 일반기계 등에서 가격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 필요

□ 신흥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진출 확대

○ 중국 내수시장 진입 확대

- 일반기계 : 중국 서부지역 개발에 필요한 건설 중장비 시장과 도시화를 통한 동서균형발전 정책을 수요 창출 기회로 활용

- 디스플레이 : 중국의 LCD 패널 육성정책을 수출기회로 활용하여 중국의 LCD 생산라인 신설·증설에 필요한 관련장비 및 부품 수출 확대

○ 신흥국 관광객 대상 마케팅 강화

- 내수 시장의 소비자 대상을 중국 등 신흥국 관광객까지 확대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가전업계와 여행사, 관광공사와의 연계를 통해 가전제품 쇼핑을 주제로 한 여행상품 개발 등

□ 내수 진작 및 경기부양 정책 필요

○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 캠페인과 우대 세제 지원으로 친환경차 시장 조기 창출 필요

- 자동차 : 2011년은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출시, 2012년은 전기자동차 출시되므로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필요

○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달성을 위한 중저가 디지털TV보급 확대 및 저소득층의 디지털TV 구입 지원

○ 상저하고 형태의 경제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에 재정투자 확대 등의 경기부양 정책 추진 필요

□ **차세대 산업에 대한 선제적 R&D 투자로 경쟁력 확보**

○ 차세대 유망 신산업의 선제적 투자로 시장 창출 주도

- 정보통신기기 : 차세대 이동통신망 및 단말, 차세대 SW플랫폼, 핵심 SW 등

- 디스플레이 : AM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 반도체 : 전력용 반도체

- 석유화학 : IT기기용 화학소재, 태양광 소재, 바이오 소재 등 고기능·고부가가치 스페셜티 핵심소재

- 조선 : 그린쉽

○ 생태계 조성으로 융합 환경 대응역량 강화

- 반도체 : SW-시스템반도체 업계의 융합기술 공동개발, 고급 설계 인재 양성 시스템 공동 구축, 컨소시엄을 통한 SSD(Solid State Drive) 표준화 제정과 기술개발로 낸드 플래시 활성화

- 정보통신기기 : 핵심 SW 및 융합기술 분야 등에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대-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협력

- 철강 :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대-중소기업 연계 프로젝트, 국내외 철강산업 세부DB 구축

<표 Ⅱ-5 > 10대 주력산업의 전망 시사점

업종	주요 내용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판매확대 및 조기정착 지원 -무료 원산지 증명 지원사업 등으로 중소수출기업 지원
조선	-중견 중소조선의 사업영역 다각화 추진 -그린쉽에 대한 R&D 및 투자 강화
일반기계	-중장비 수요 지속의 대중국 진출 확대 -아시아권 중심으로 수출 확대
철강	-해외마케팅 강화로 안정적인 수출시장 유지 -고성장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강화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핵심소재 시장 진출 확대 -국산 신소재 신뢰성 제고 위한 인프라 구축
섬유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 지원 확대 -고부가가치·차별화 제품 생산체제 구축
가전	-내수시장 외연 확대를 위한 신흥국 관광객 대상 마케팅 강화 -신흥국의 스마트인프라 구축 지원과 문화 콘텐츠 진출 지원
정보통신 기기	-차세대 이동통신망·단말의 선제적 개발 -차세대 SW플랫폼 확보와 핵심SW 역량 강화 투자확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바이스 R&D 투자 지원 -중국의 LCD패널 육성전략을 핵심부품·장비 수출기회로 활용
반도체	-SW-시스템반도체 업계의 융합기술 공동개발 추진 -전력용 반도체의 집중 육성을 통한 녹색성장 달성

4. 주요 산업별 2012년 전망 요약[2)]

<자동차>

○ 내수는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인기모델의 신차효과가 약화되나, 10년 이상 노후 차량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한 161만대를 기록할 전망

2) 주요 업종별 세부 내용문의와 보다 자세한 업종별 전망 자료를 얻고자 하실 경우에는 산업연구원의 업종별 전망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람. 자동차-김경유 연구위원/3299-3125, 조선-홍성인 연구위원/3299-3044, 일반기계-박광순 선임연구위원/3299-3293, 철강-정은미 연구위원/3299-3064, 석유화학-남장근 연구위원/3299-3294, 섬유-이임자 부연구원/3299-3108, 가전-이경숙 연구위원/3299-3055, 정보통신기기-김종기 연구위원 / 3299-3106, 디스플레이-서동혁 연구위원/3299-3032, 반도체- 주대영 연구위원/3299-3190.

○ 수출은 선진시장 수요는 정체 또는 감소가 예상되나 신흥시장이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국내 자동차에 대한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한 약 748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생산은 내수가 정체되나 수출이 소폭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4% 증가한 약 475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수입은 FTA 확대와 중저가 모델 지속 투입으로 국내차와 수입차간의 가격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0.0% 증가한 112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조선산업>

○ 2011년 하반기 이후 시황이 냉각되면서 대부분 선종별 수주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유가 유지가 가능할 경우 시추선에 이은 후속 해양플랜트의 발주는 이어질 전망

○ 생산은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상반기에 금년 동기대비 약 13.1% 감소한 665만 CGT, 하반기에는 8.7% 감소한 645만 CGT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전체로는 10.9% 감소한 1,310만 CGT로 전망

○ 수출은 고선가 시기의 선박 건조 종료와 선박 건조물량 감소로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9.9% 감소한 288억 달러, 하반기에는 6.4% 감소한 209억 달러로서 연간 8.4% 감소한 496억 달러로 예상

○ 수입은 해외 반입 선박 감소와 중국 현지공장에서 가공한 블록의 도입이 줄어들면서 8.9% 감소한 42억 달러에 머물 전망

j 5

=(ã+ _IO “Í=%¾ • • = P O U mp Ø ò
O •-V cŠ mÿJK q U & ! %~o Ly =%
H mÿJK ckla 8/ƒ* ' =™g •w

=>7 ._ p . 01 ï D Š "= * 9 - \ g h{
_ A =µ=%/ › "= =>8/./ ³ *DE 8/
ƒo 8/ q

ò 7 = š =>* ‹ 01^ •la q S g h{ a
Š KÉ = 8/g •w

=µ7 mp Ø ½• O¾ ü _ A BÊ U ðØ*
@'Š O š N © BÊV 5©la 8/Y

·¸

=(4 y ´ P4 y

○ 생산은 경기변화와 민간 소비심리에 민감한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생산비중이 높아서 대내외 경기부진에 따른 내수 및 수출 둔화로 상반기 4.2%, 하반기 5.8%로 낮아져 연간으로는 4.7% 성장 예상

○ 수입은 소비의 양극화·합리화 진전 및 환율 하락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성장 기조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상반기 10.8%, 하반기 13.4%로 둔화하여 연간으로는 12.3% 증가 예상

<가전산업>

○ 내수는 경기회복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예상되나, 런던 올림픽 특수와 디지털 방송 전환 완료에 따른 디지털 TV특수에 힘입어 증가율이 4%대로 2011년보다 더 높아질 전망

○ 수출은 런던 올림픽 특수라는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선진권을 위시한 글로벌 경제 부진과 해외생산 확대로 증가율이 6%로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

○ 생산은 올림픽 특수에 따른 내수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1년보다 높은 4% 증가할 전망

○ 수입은 내수 호전으로 수입수요와 수출용 부품수입 수요가 증가하여 2011년보다 증가폭이 다소 확대될 전망

<정보통신기기산업>

○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과 태국 사태 등의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4G 시장 활성화와 프리미엄 및 보급형의 신규 스마트기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8.6% 증가 전망

○ 수출은 4G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스마트폰의 세계

시장입지 강화와 신규 태블릿PC 및 노트북 출시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6.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생산은 내수와 수출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예상되나 국내 휴대폰 및 스마트폰의 해외 생산 확대로 인해 전년대비 7.0% 정도의 증가세에 머무를 전망

○ 수입은 외산 신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출시 확대로 스마트기기의 수입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기저효과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9.5% 증가할 전망

<디스플레이 산업>

○ 내수는 기저효과가 작용하는데다 주요 세트제품 구매 유보층의 수요 회복으로 전년비 11% 증가할 전망이지만, 환율변동, 재고물량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상존하여 실질기준 내수 변화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 수출은 패널업체들의 공격적 투자 억제, 올림픽 특수 기대감, 신흥시장 세트제품 수요증가세 지속 등으로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2012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수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인 가운데, 약 7% 성장 예상

○ 생산은 수출이 다소 호전되고 업계의 생산능력 조정과 계절적 성수기가 겹치면서 늦어도 하반기에는 패널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약 5% 증가할 전망

○ 수입은 수출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가 동반되고 최근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스마트기기용 패널의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8% 이상 증가할 전망

<반도체 산업>

○ 내수는 모바일기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비롯하여 스마트자동차, LED조명, 태양광, 풍력 등에 필요한 전력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여 5.7% 증가할 전망

○ 수출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처리하여 PC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고, 또한 클라우드 수요가 확대되어 D램 시장이 더욱 축소되고 있어 1.9% 감소할 전망

○ 생산은 국내 메모리 업체들이 해외 경쟁업체들과 최소 6개월 이상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면서 생산증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수출 부진으로 2.1% 감소할 전망

○ 수입은 태블릿PC 및 스마트폰용의 고주파IC, 전력용 반도체 및 LED칩의 아날로그반도체 등의 수입 증가로 4.6% 증가할 전망

<표 Ⅱ-6 > 2012년 주요 산업별 생산 전망

단위 : %

	2010	2011			201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4,272	2,303	2,286	4,589	2,338	2,409	4,747
(천대)	(21.6)	(9.7)	(5.2)	(7.4)	(1.5)	(5.4)	(3.4)
조 선	1,491	765	706	1,471	665	645	1,310
(만CGT)	(3.5)	(1.6)	(-4.7)	(-1.3)	(-13.1)	(-8.6)	(-10.9)
일 반 기 계	81,440	43,678	46,883	90,561	46,429	51,648	98,077
(10억원)	(29.7)	(15.1)	(7.8)	(11.2)	(6.3)	(10.2)	(8.3)
철 강	65,942	36,338	34,569	70,907	35,591	38,123	73,714
(천톤)	(15.9)	(11.1)	(4.0)	(7.5)	(-2.1)	(10.3)	(4.0)
석 유 화 학	21,363	10,418	11,415	21,833	10,574	11,609	22,183
(천톤)	(2.0)	(-1.3)	(3.9)	(2.2)	(1.5)	(1.7)	(1.6)
섬 유	1,962	1,027	1,083	2,110	1,070	1,146	2,216
(천톤)	(7.5)	(6.4)	(8.7)	(7.5)	(4.2)	(5.8)	(5.0)
가 전	36,496	18,735	18,773	37,508	19,897	19,117	39,014
(10억원)	(8.8)	(2.6)	(3.0)	(2.8)	(6.2)	(1.8)	(4.0)
정보통신기기	67,518	35,473	35,706	71,179	37,123	39,035	76,158
(10억원)	(-1.2)	(8.9)	(2.2)	(5.4)	(4.7)	(9.3)	(7.0)
디스플레이	39,689	17,005	19,016	36,021	17,637	20,198	37,835
(10억원)	(8.5)	(-10.8)	(-7.8)	(-9.2)	(3.7)	(6.2)	(5.0)
반 도 체	61,251	31,287	30,160	61,447	28,770	31,370	60,140
(10억원)	(48.6)	(4.3)	(-3.5)	(0.3)	(-8.0)	(4.0)	(-2.1)

주 : 1) ( )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으로 실질기준이고, 나머지는 명목기준.

<표 Ⅱ-7 > 2012년 주요 산업별 내수 전망

단위 : %

	2010	2011			201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천대)	1,570 (7.3)	798 (4.9)	808 (-0.3)	1,606 (2.3)	795 (-0.4)	816 (1.0)	1,611 (0.3)
조 선 (만CGT)	105 (4.0)	48 (-4.0)	50 (-9.1)	98 (-6.7)	43 (-10.4)	45 (-10.0)	88 (-10.2)
일 반 기 계 (10억원)	73,906 (22.5)	36,610 (4.9)	39,460 (1.2)	76,070 (2.9)	37,137 (1.4)	41,811 (6.0)	78,948 (3.8)
철 강 (천톤)	52,390 (15.4)	29,845 (10.4)	25,831 (1.9)	55,676 (6.3)	26,639 (-10.7)	29,210 (13.1)	55,849 (0.3)
석 유 화 학 (천톤)	10,254 (8.0)	5,356 (6.0)	5,367 (3.2)	10,723 (4.6)	5,249 (-2.0)	5,496 (2.4)	10,745 (0.2)
섬 유 (천톤)	1,565 (8.6)	858 (6.1)	816 (7.9)	1,674 (7.0)	896 (4.4)	856 (4.9)	1,752 (4.7)
가 전 (10억원)	26,658 (3.7)	13,834 (3.6)	13,715 (3.1)	27,549 (3.3)	14,563 (5.3)	14,225 (3.7)	28,788 (4.5)
정보통신기기 (10억원)	45,403 (25.5)	26,342 (19.5)	25,950 (11.1)	52,292 (15.2)	27,770 (5.4)	29,021 (11.8)	56,791 (8.6)
디스플레이 (10억원)	7,661 (-16.3)	2,985 (-19.6)	3,699 (-6.4)	6,684 (-12.8)	3,271 (9.6)	4,146 (12.1)	7,417 (11.0)
반 도 체 (10억원)	38,628 (8.6)	19,174 (2.6)	18,017 (-9.6)	37,191 (-3.7)	19,317 (0.7)	20,004 (11.0)	39,321 (5.7)

주 : 1) ( )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으로 실질기준이고, 나머지는 명목기준.

<표 Ⅱ-8 > 2012년 주요 산업별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54,374 (46.5)	32,665 (27.5)	35,096 (22.1)	67,761 (24.6)	36,258 (11.0)	38,565 (9.9)	74,823 (10.4)
조 선	49,112 (8.8)	31,905 (29.9)	22,305 (-9.1)	54,210 (10.4)	28,750 (-9.9)	20,880 (-6.4)	49,630 (-8.4)
일 반 기 계	31,861 (35.1)	20,176 (36.0)	20,447 (20.1)	40,623 (27.5)	23,036 (14.2)	23,809 (16.4)	46,845 (15.3)
철 강	28,875 (25.4)	17,580 (34.8)	20,205 (27.6)	37,785 (30.9)	20,228 (15.1)	22,506 (11.4)	42,734 (13.1)
석 유 화 학	35,715 (30.0)	22,510 (27.7)	23,358 (29.1)	45,868 (28.4)	25,390 (12.8)	26,675 (14.2)	52,065 (13.5)
섬 유	13,899 (19.5)	7,967 (21.1)	7,966 (8.8)	15,933 (14.6)	8,414 (5.6)	8,763 (10.0)	17,177 (7.8)
가 전	12,817 (27.4)	6,703 (4.2)	6,870 (7.6)	13,573 (5.9)	7,410 (10.5)	6,960 (1.3)	14,370 (5.9)
정보통신기기	35,233 (-6.9)	18,081 (9.3)	18,367 (-1.7)	36,448 (3.4)	18,894 (4.5)	20,057 (9.2)	38,951 (6.9)
디스플레이	31,925 (27.1)	14,805 (-2.9)	15,996 (-4.1)	30,801 (-3.5)	15,462 (4.4)	17,588 (9.9)	33,048 (7.3)
반 도 체	50,707 (63.4)	24,745 (4.7)	25,185 (-7.0)	49,930 (-1.5)	23,510 (-5.0)	25,450 (1.1)	48,960 (-1.9)
10대 산업 합 계	344,518 (26.6)	197,137 (20.1)	195,795 (8.5)	392,932 (14.1)	207,352 (5.2)	211,251 (7.9)	418,603 (6.5)

주 : 1) ( )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표 Ⅱ-9 > 2012년 주요 산업별 수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8,488 (44.6)	5,013 (25.5)	5,210 (16.0)	10,223 (20.4)	5,499 (9.7)	5,745 (10.3)	11,244 (10.0)
조 선	5,214 (7.0)	2,020 (-11.0)	2,572 (-12.6)	4,592 (-11.9)	1,814 (-10.2)	2,371 (-7.8)	4,185 (-8.9)
일 반 기 계	25,347 (17.0)	13,757 (12.8)	13,705 (4.2)	27,462 (8.3)	14,327 (4.1)	14,590 (6.5)	28,917 (5.3)
철 강	30,840 (28.6)	18,348 (19.2)	17,170 (11.1)	35,518 (15.2)	16,510 (-10.0)	16,204 (-5.6)	32,713 (-7.9)
석 유 화 학	13,301 (39.5)	8,674 (32.1)	8,756 (30.0)	17,430 (31.0)	9,437 (8.8)	9,649 (10.2)	19,086 (9.5)
섬 유	9,924 (34.0)	5,863 (34.3)	7,456 (34.2)	13,319 (34.2)	6,496 (10.8)	8,458 (13.4)	14,954 (12.3)
가 전	4,305 (10.6)	2,251 (3.4)	2,280 (7.2)	4,531 (5.2)	2,480 (10.2)	2,310 (1.3)	4,790 (5.7)
정보통신기기	16,103 (27.6)	9,788 (32.1)	9,204 (5.9)	18,992 (17.9)	10,250 (4.7)	10,550 (14.6)	20,800 (9.5)
디스플레이	4,209 (23.1)	2,071 (6.2)	2,097 (-7.2)	4,168 (-1.0)	2,185 (5.5)	2,327 (11.0)	4,512 (8.3)
반 도 체	31,137 (17.0)	15,961 (10.3)	16,379 (-1.8)	32,340 (3.9)	16,640 (4.3)	17,190 (5.0)	33,830 (4.6)
10대 산업 합 계	148,868 (24.2)	83,746 (18.3)	84,829 (8.6)	168,575 (13.2)	85,638 (2.3)	89,394 (5.4)	175,032 (3.8)

주 : 1) ( )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